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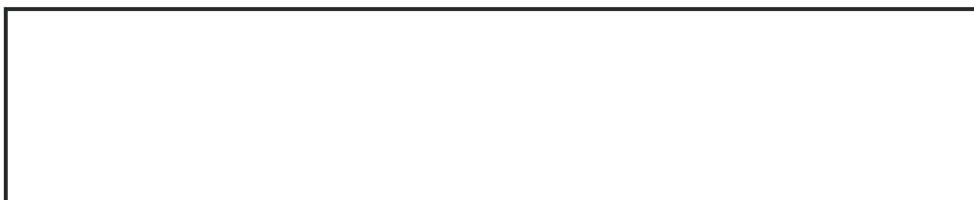
U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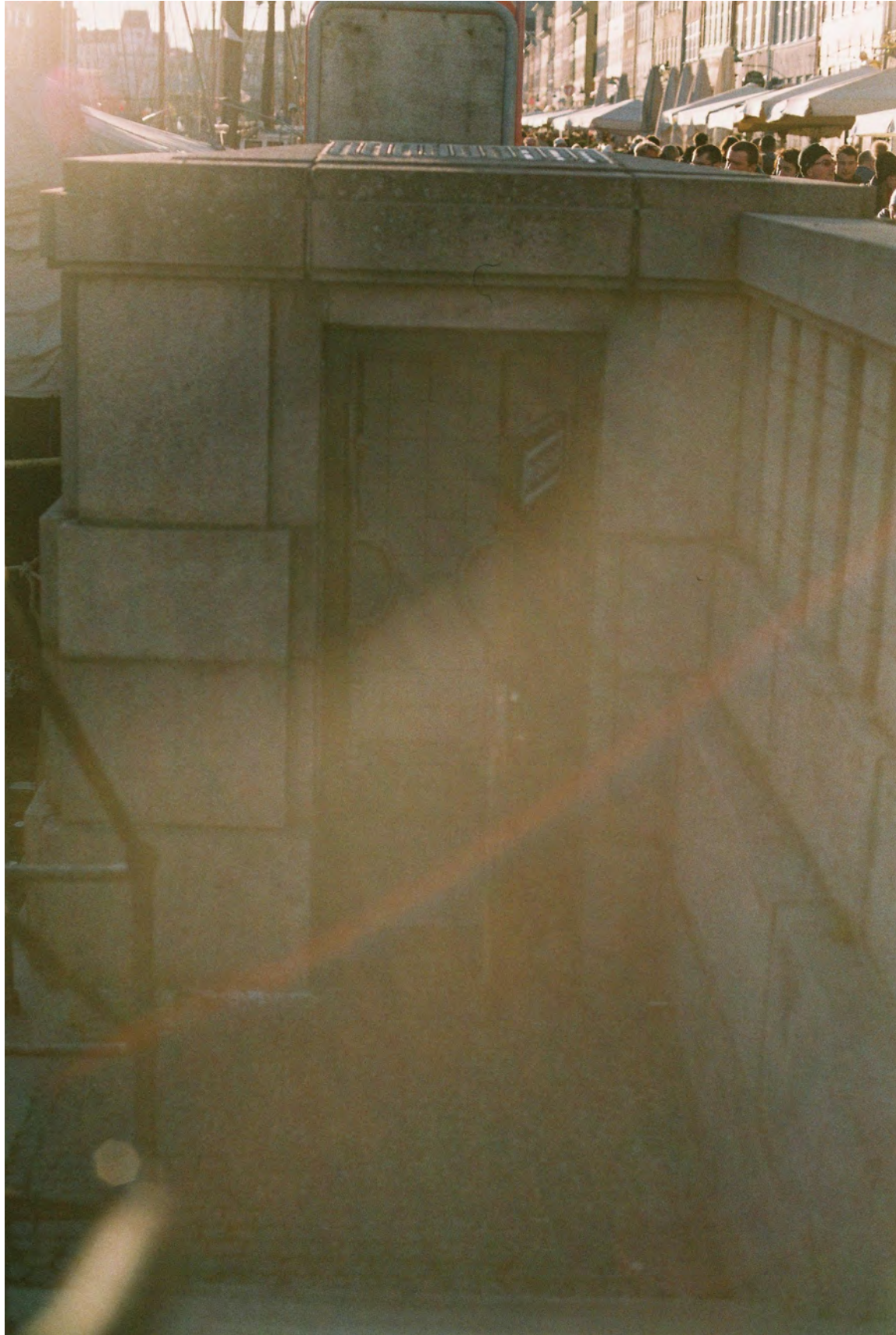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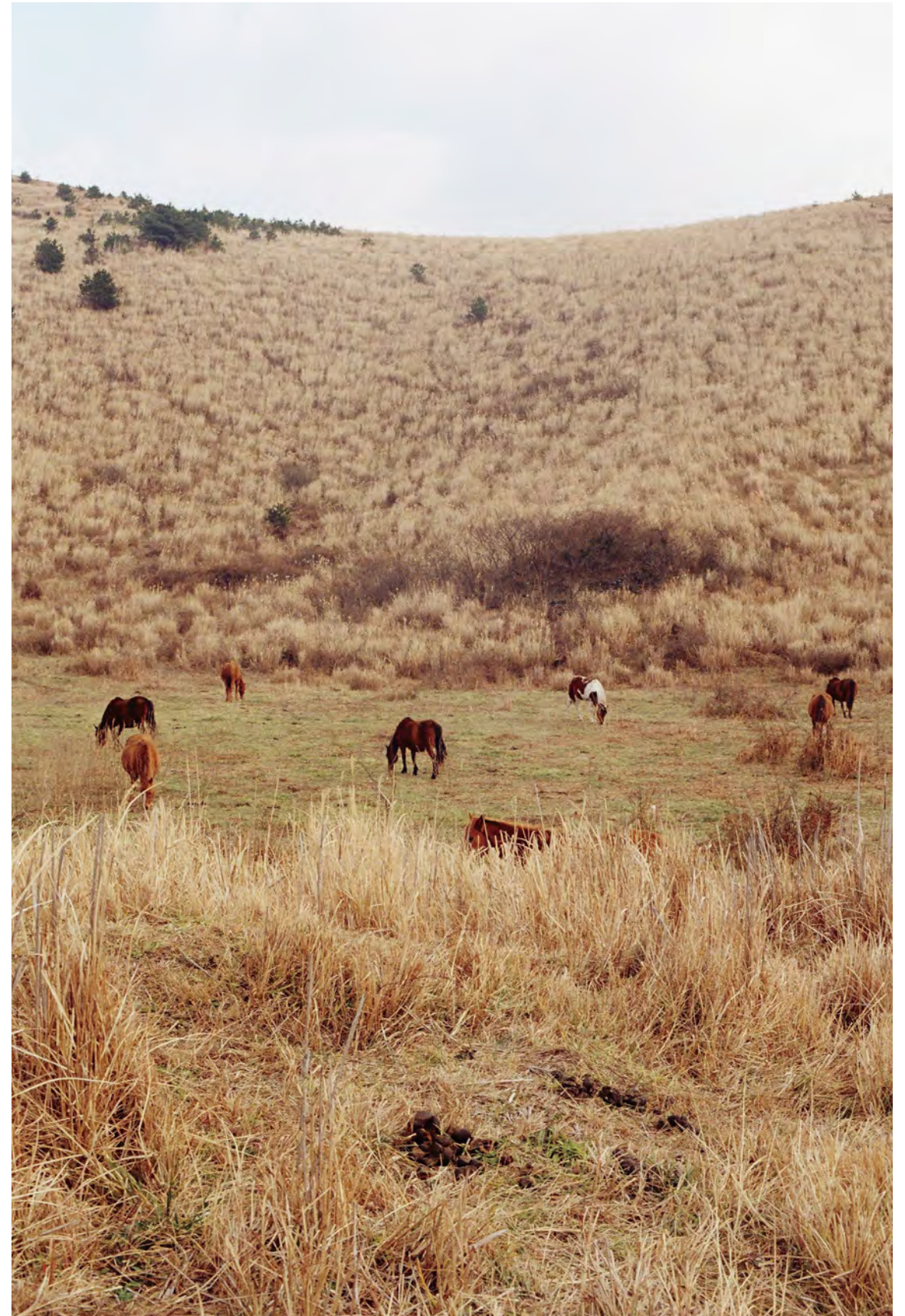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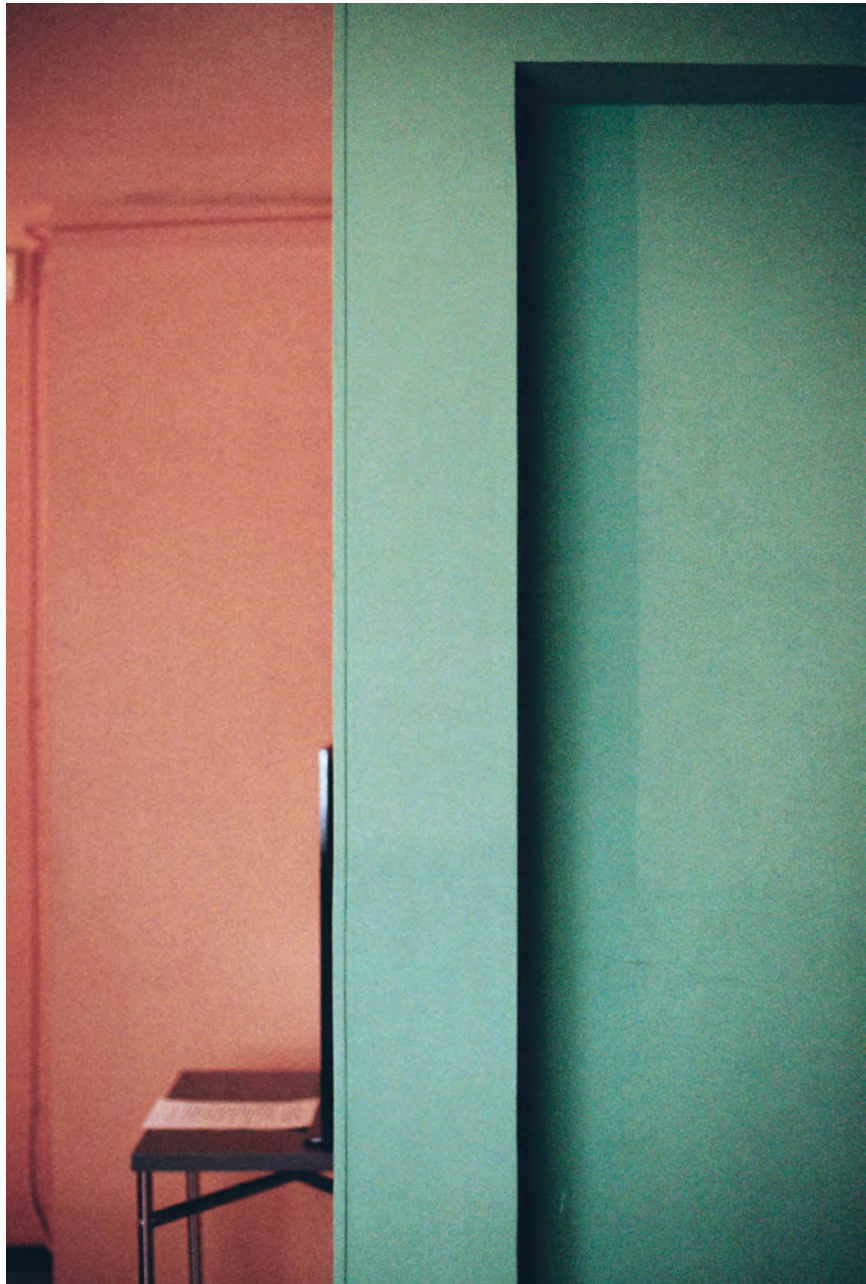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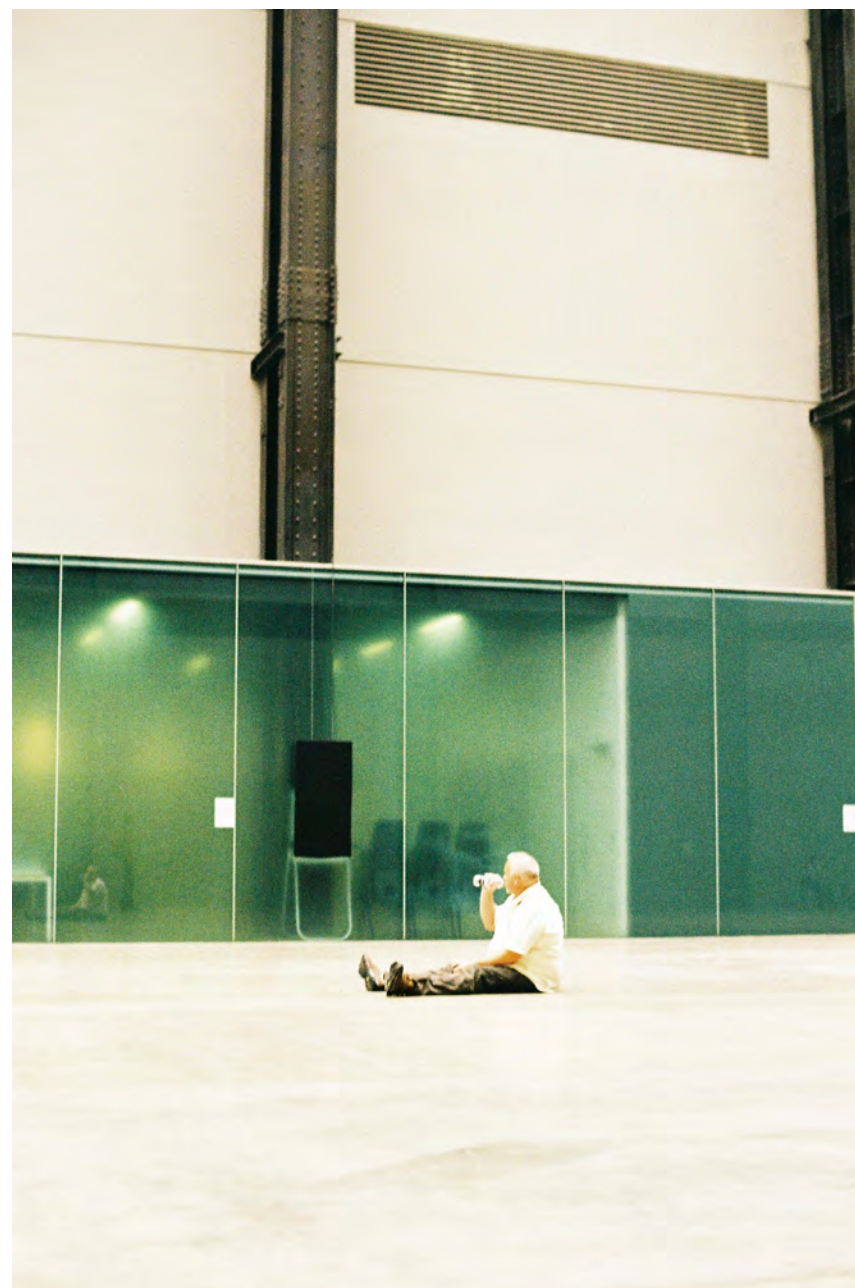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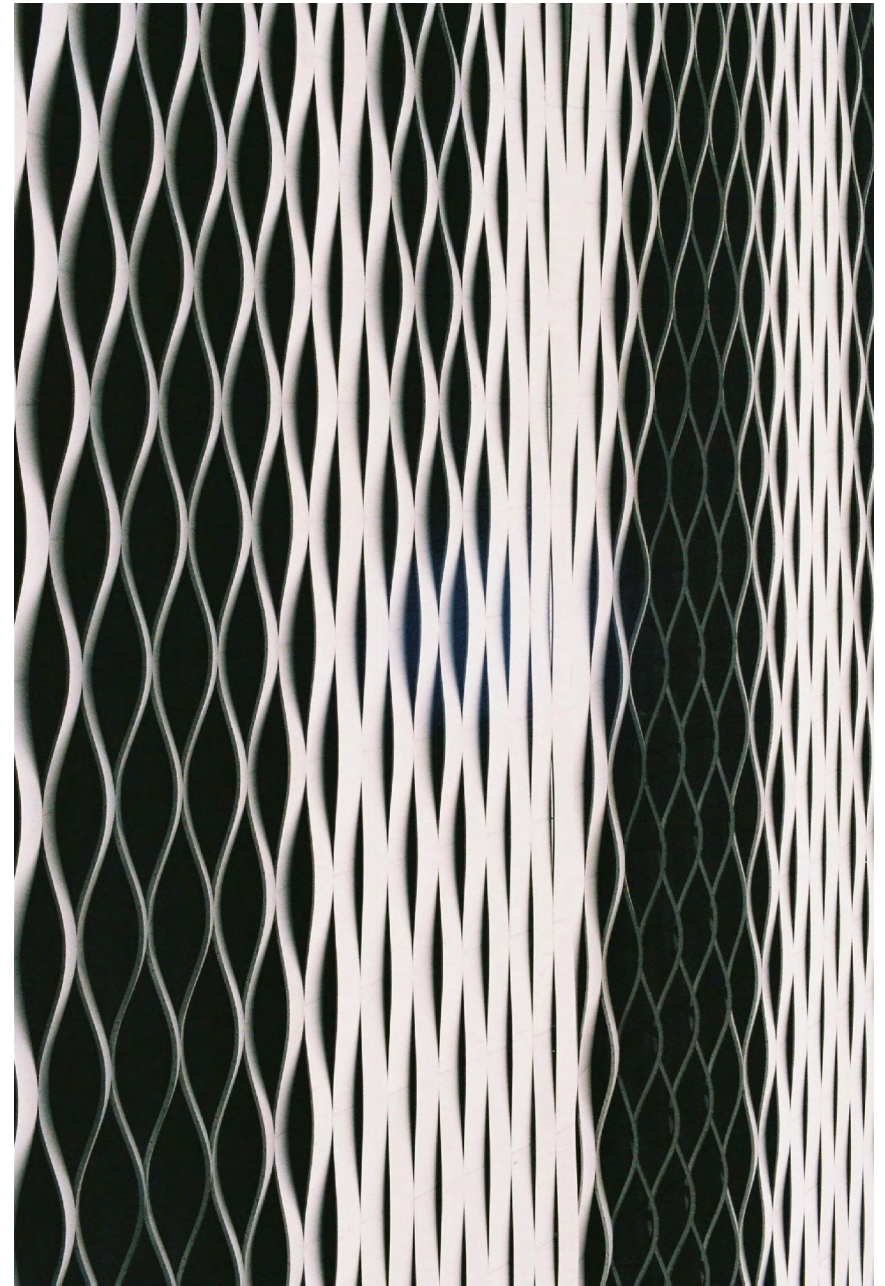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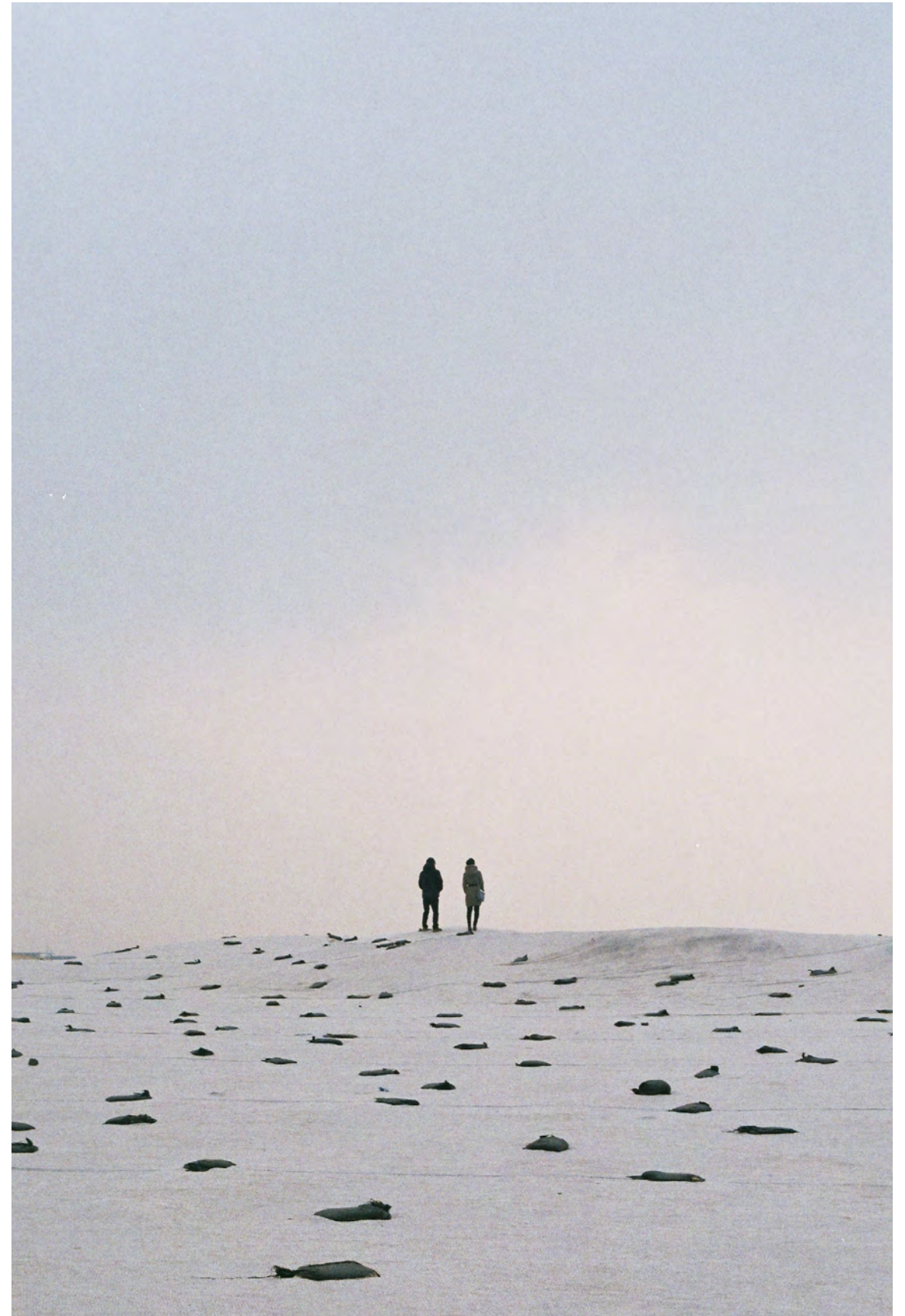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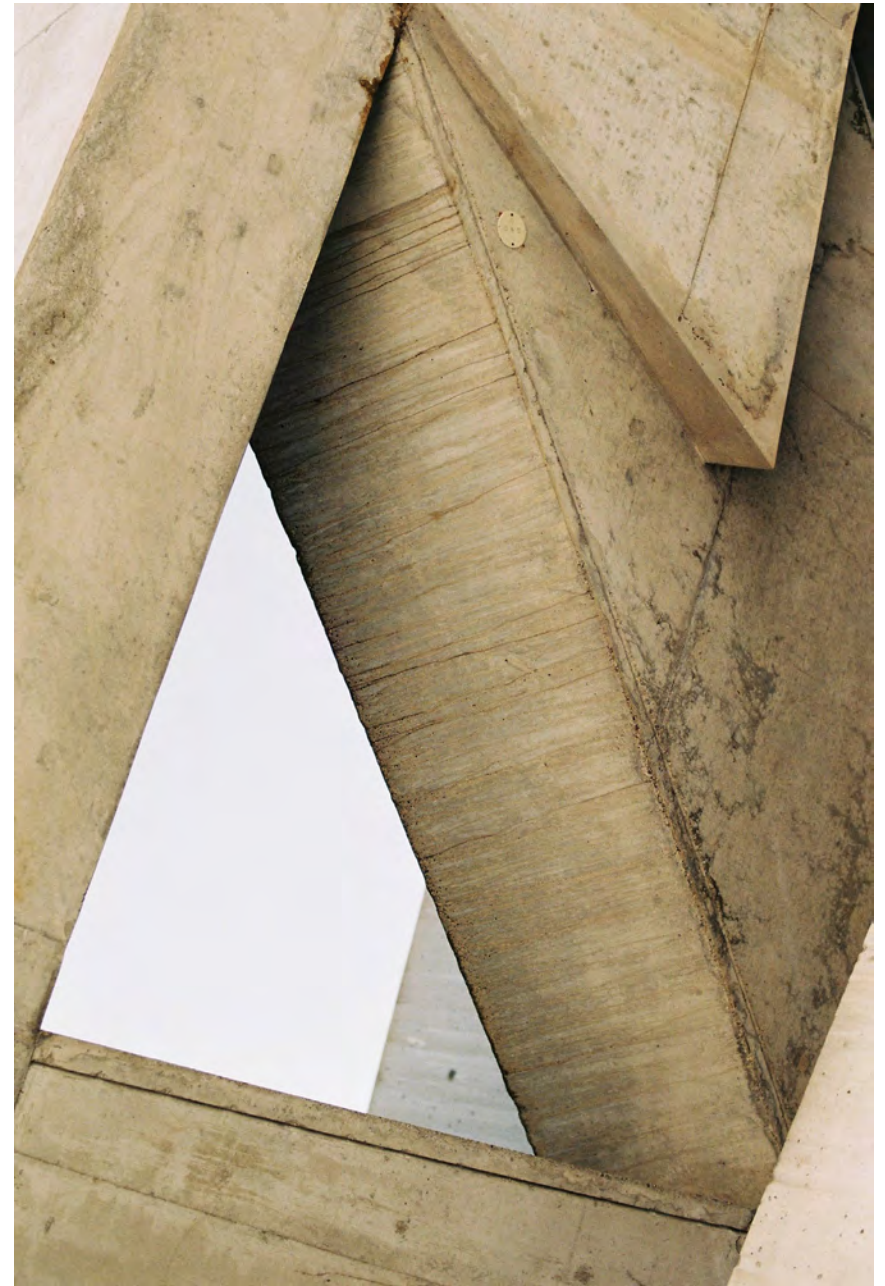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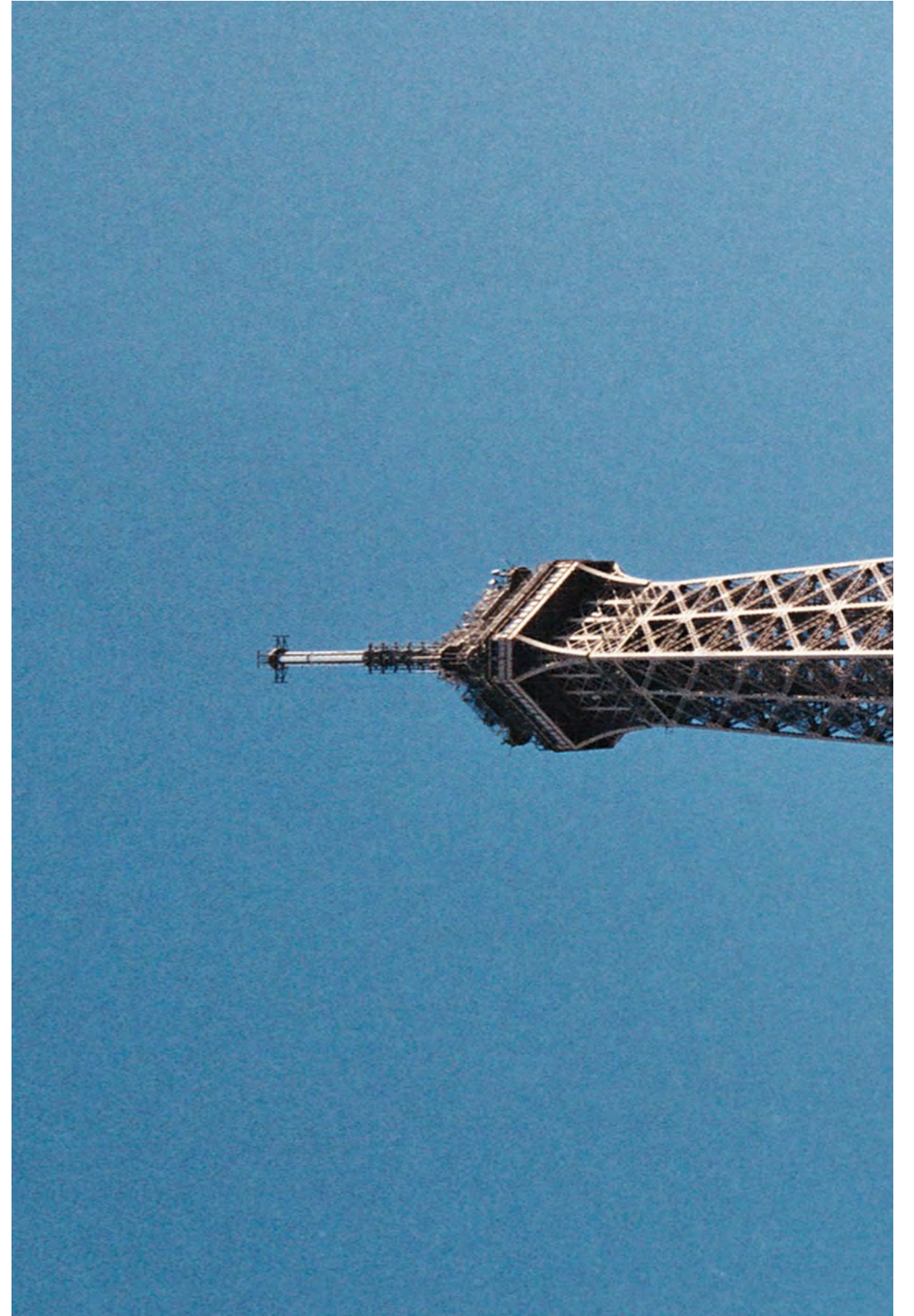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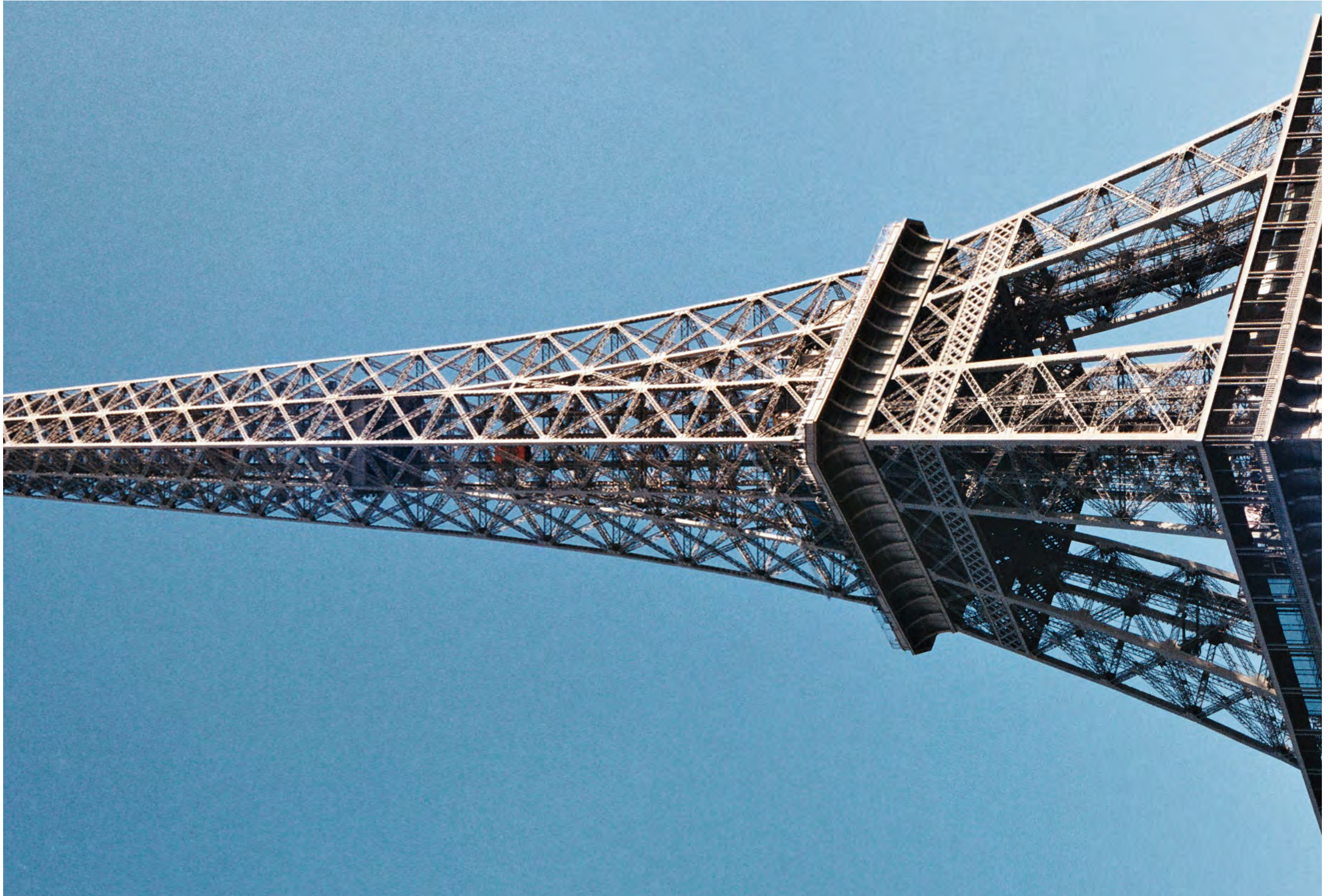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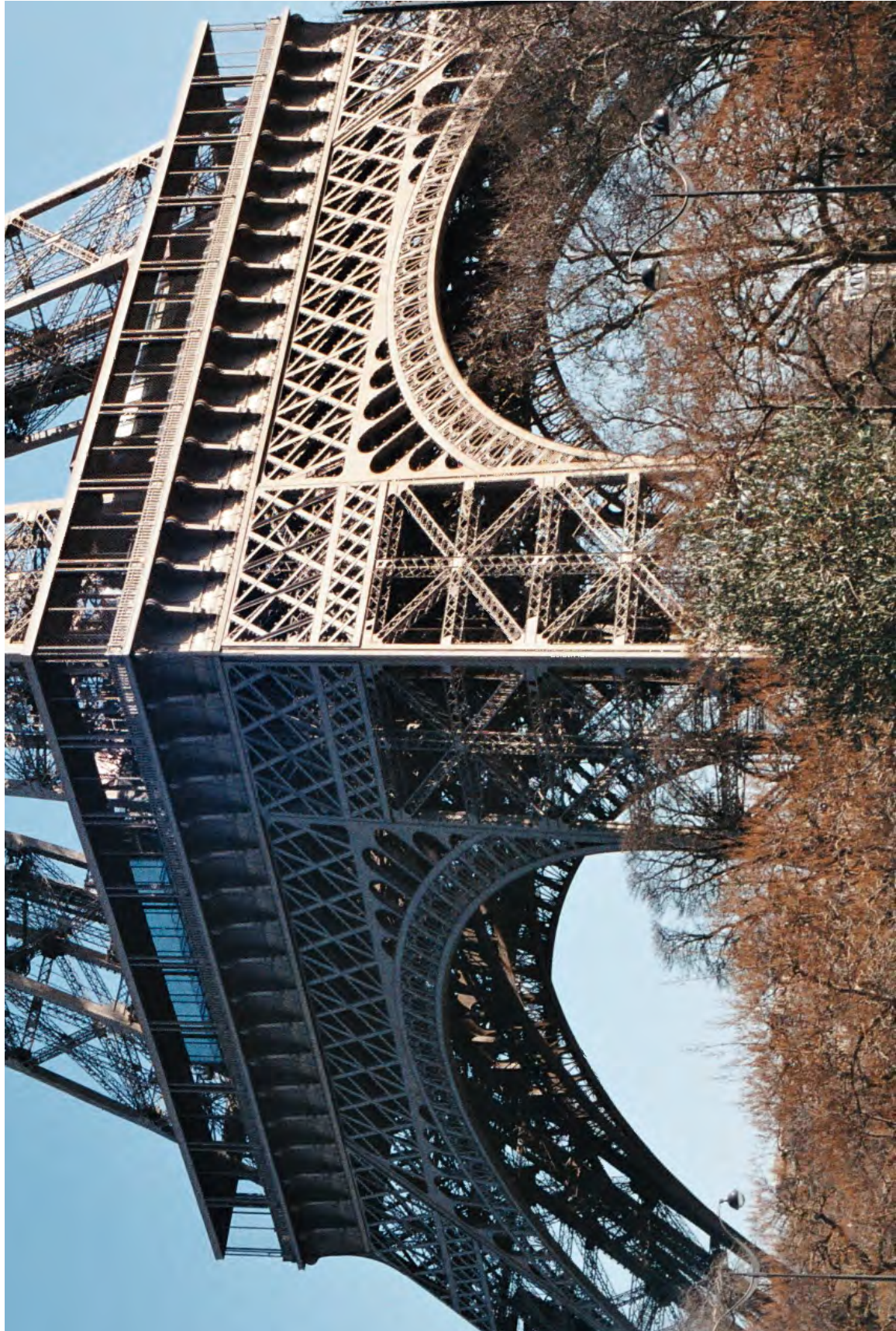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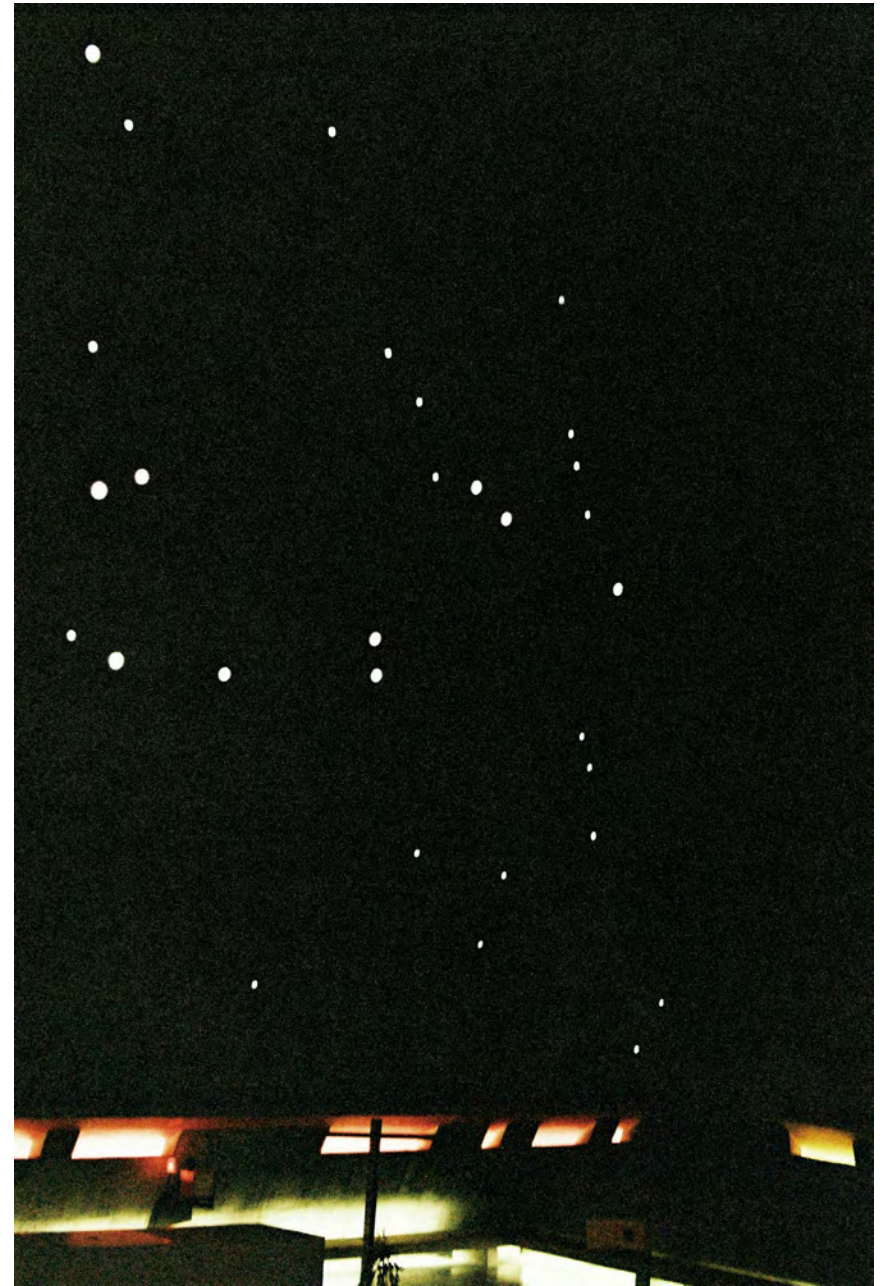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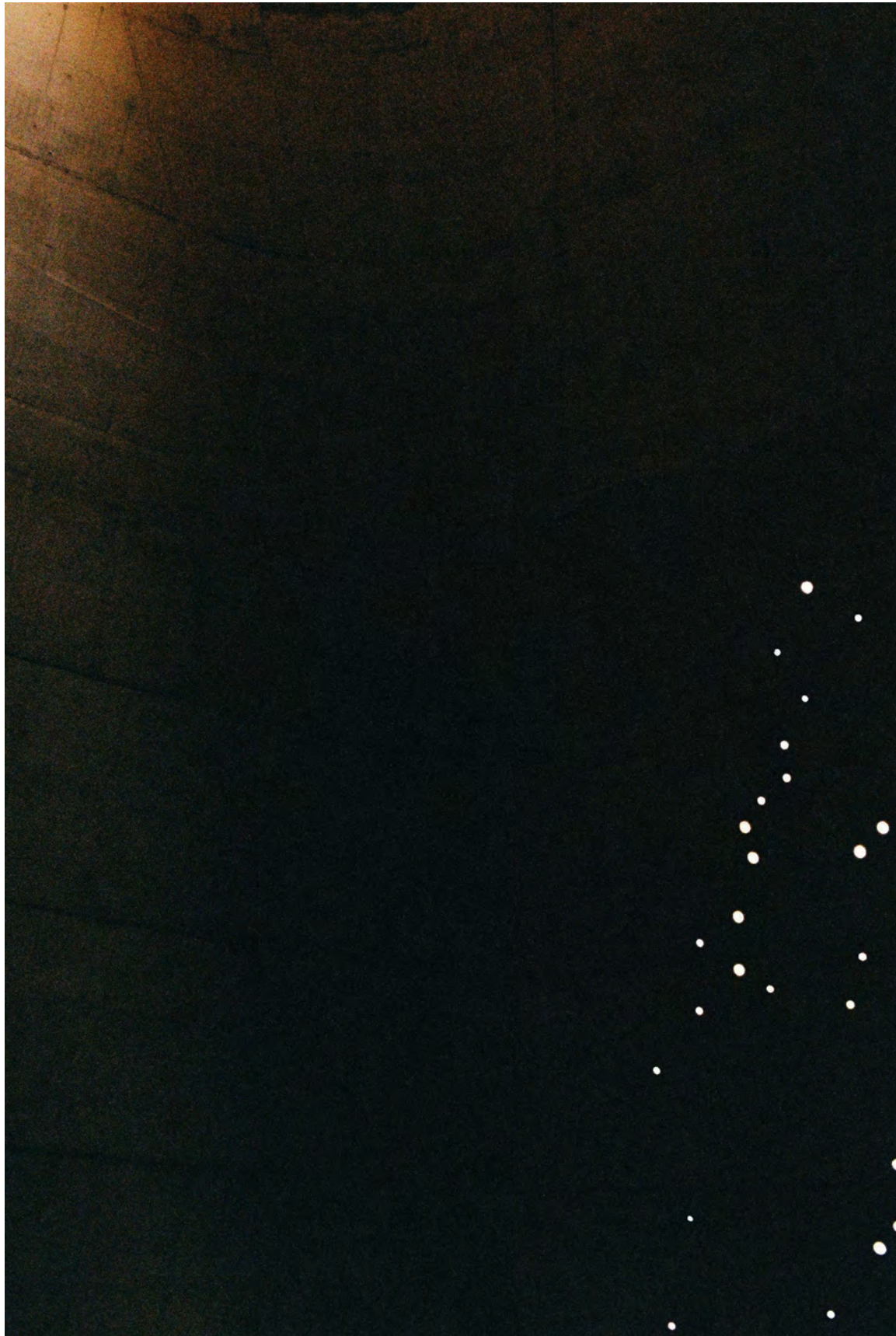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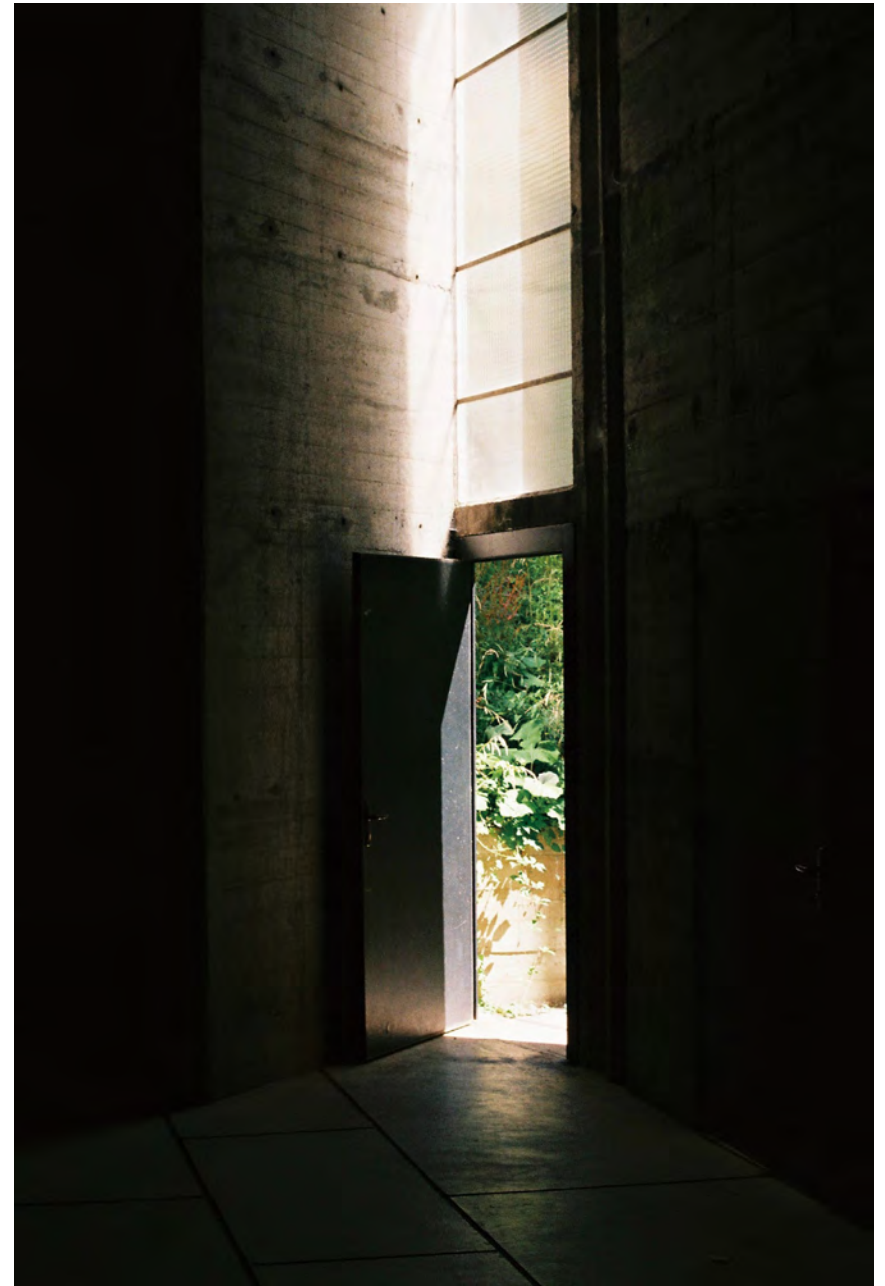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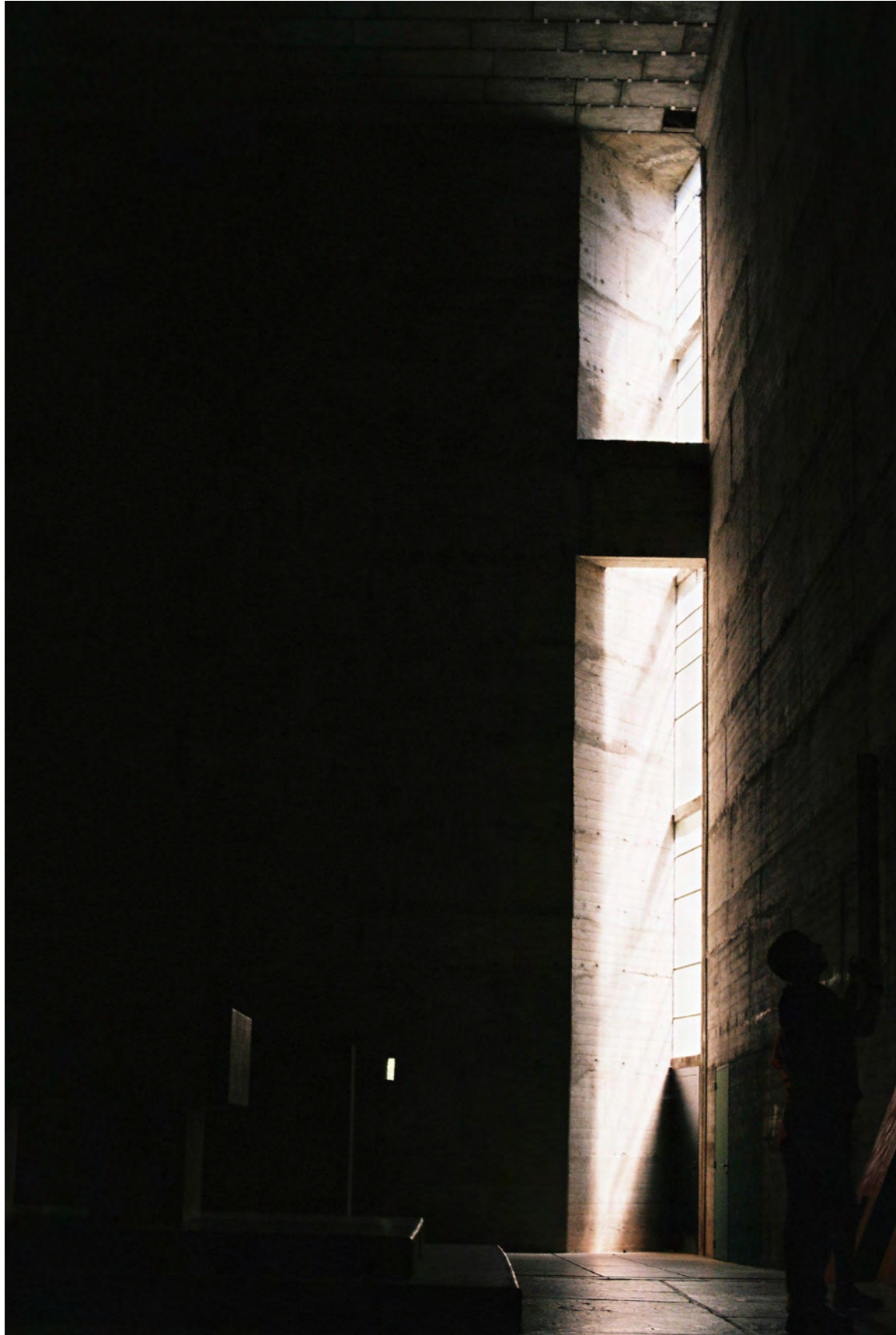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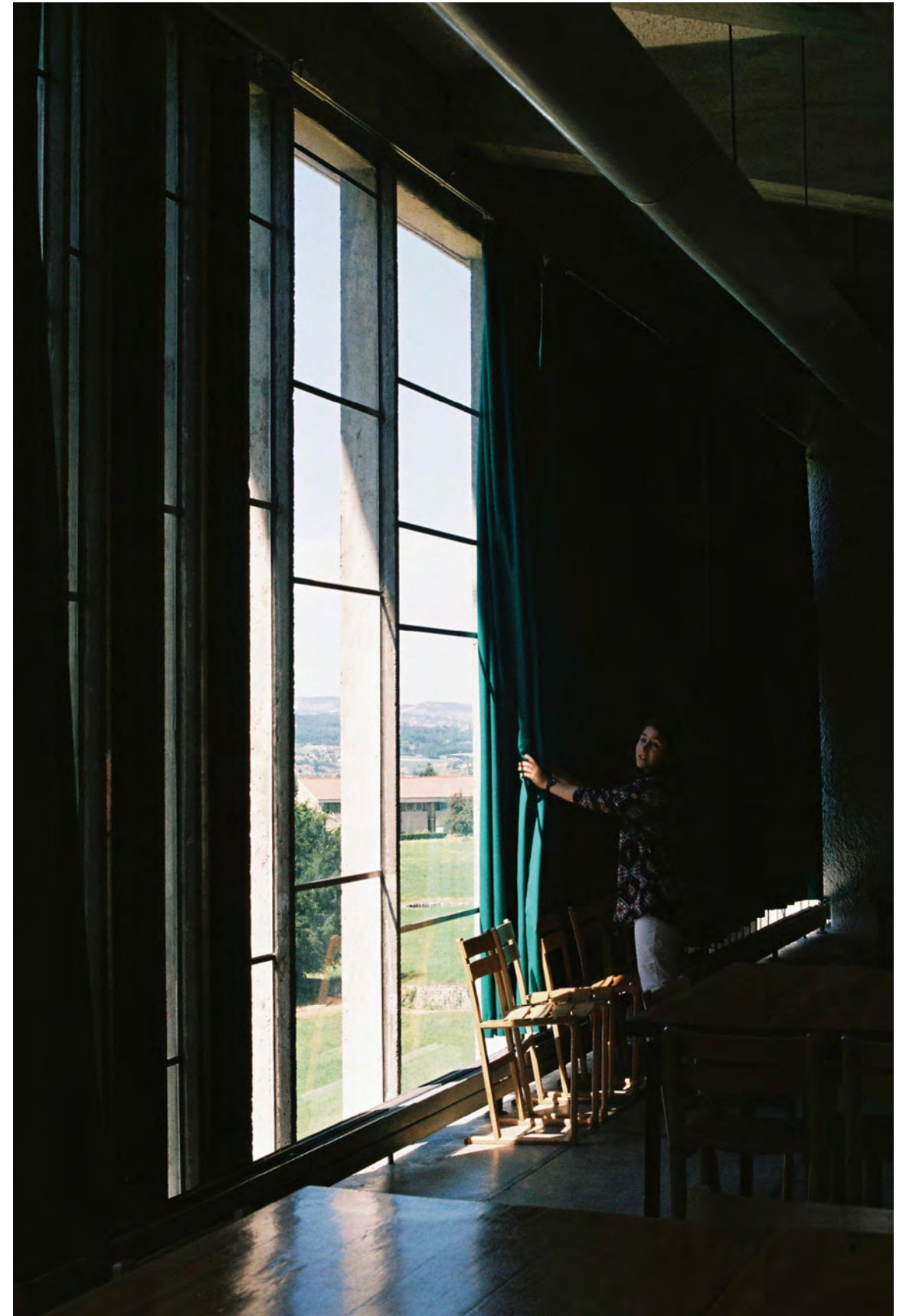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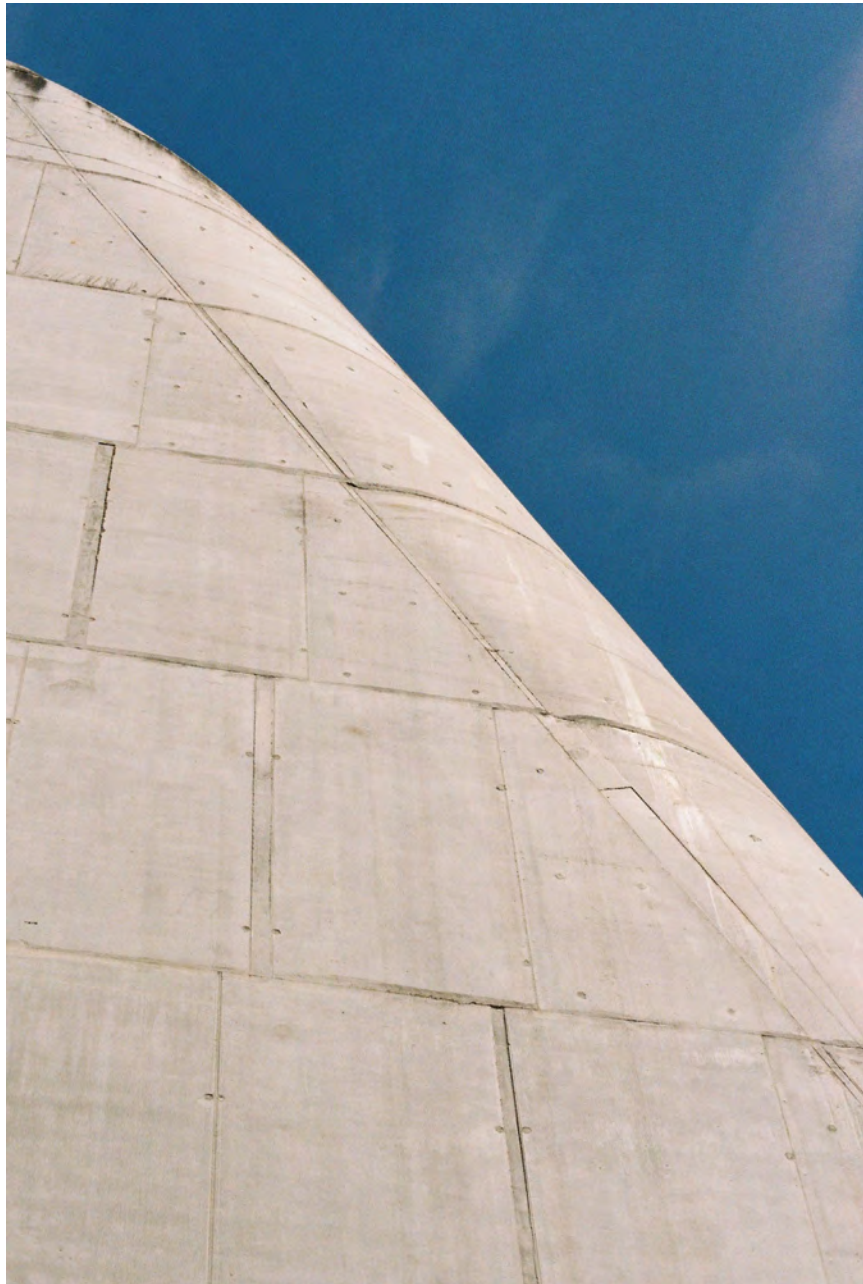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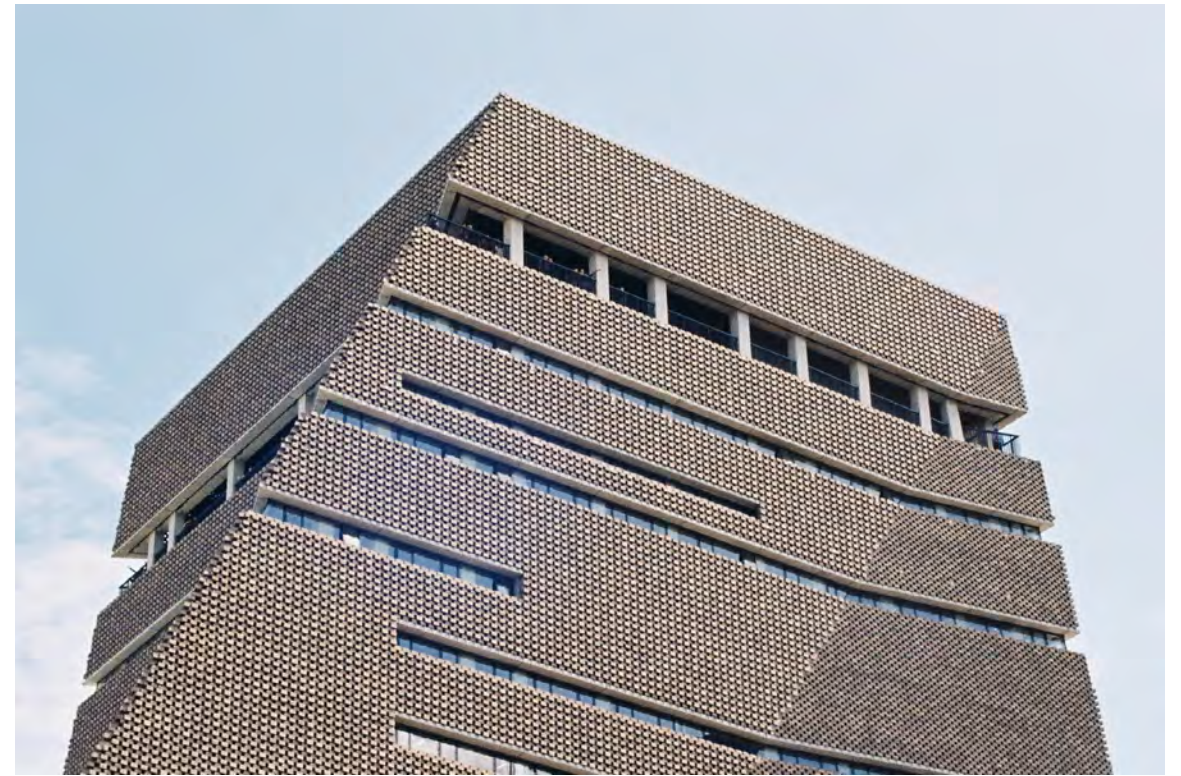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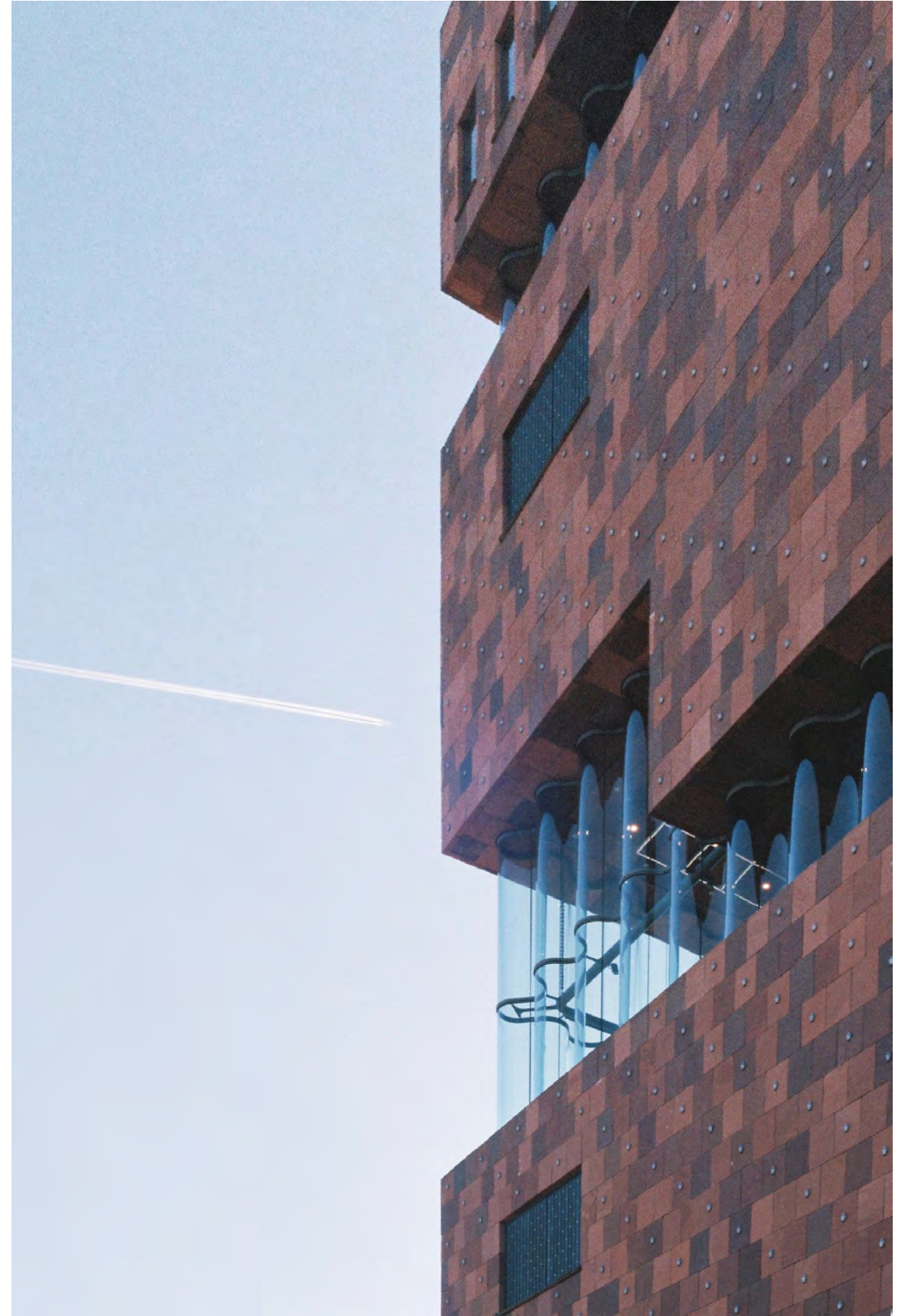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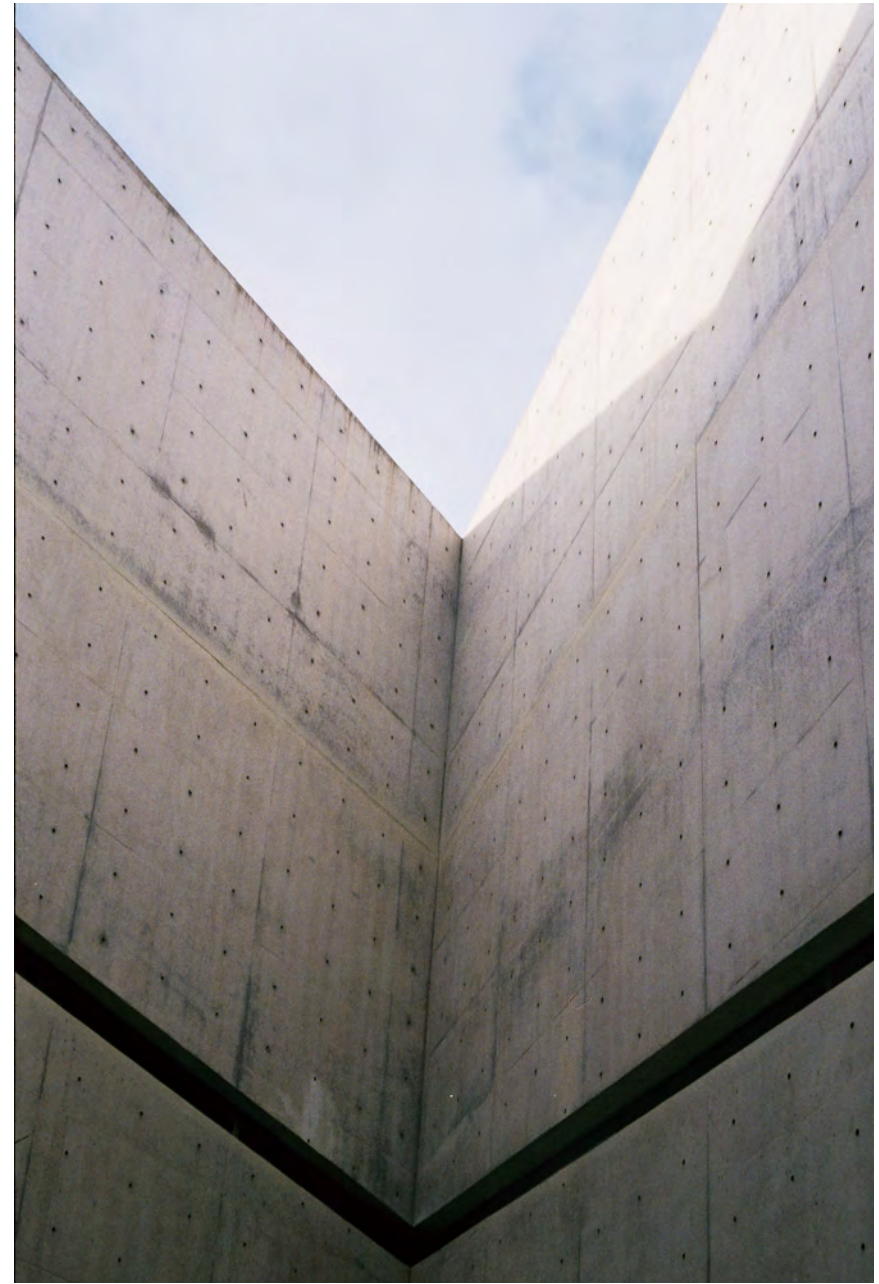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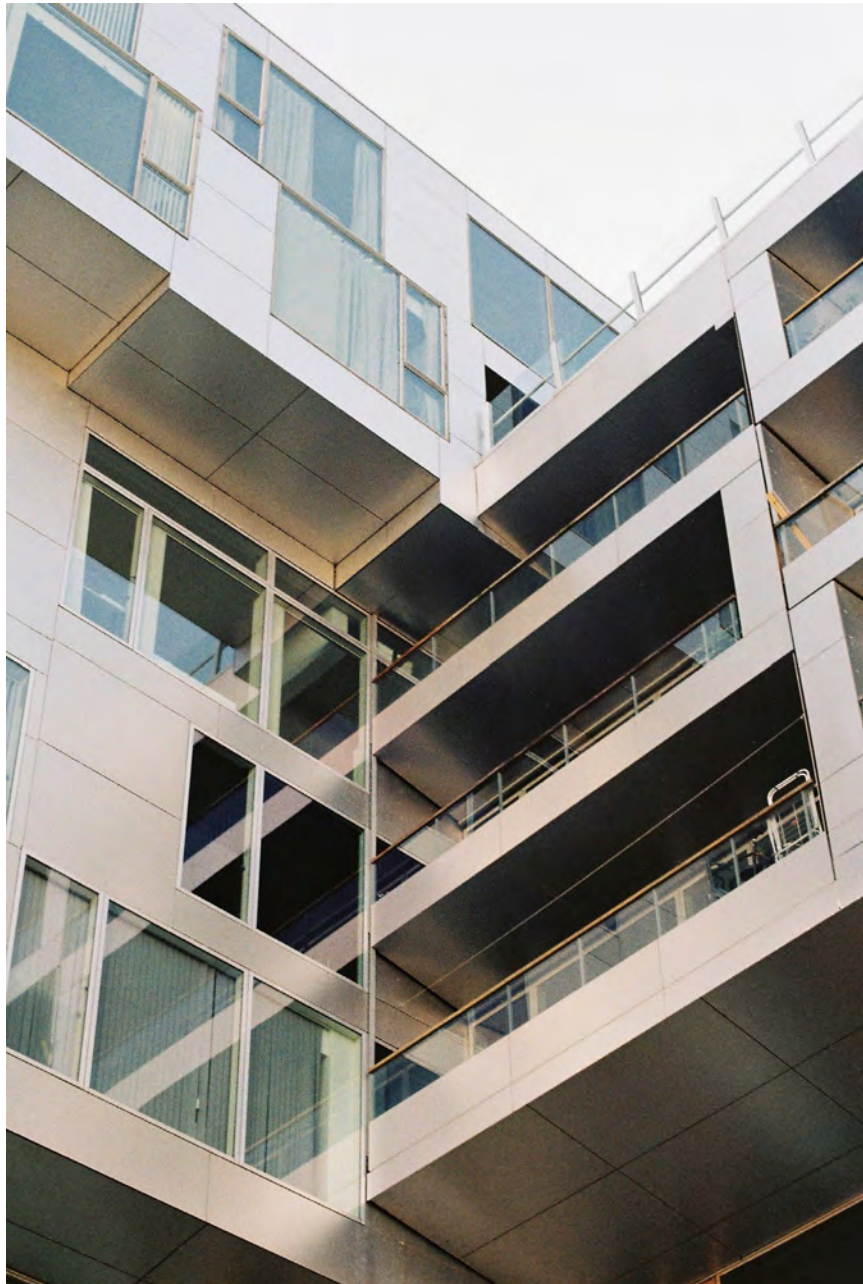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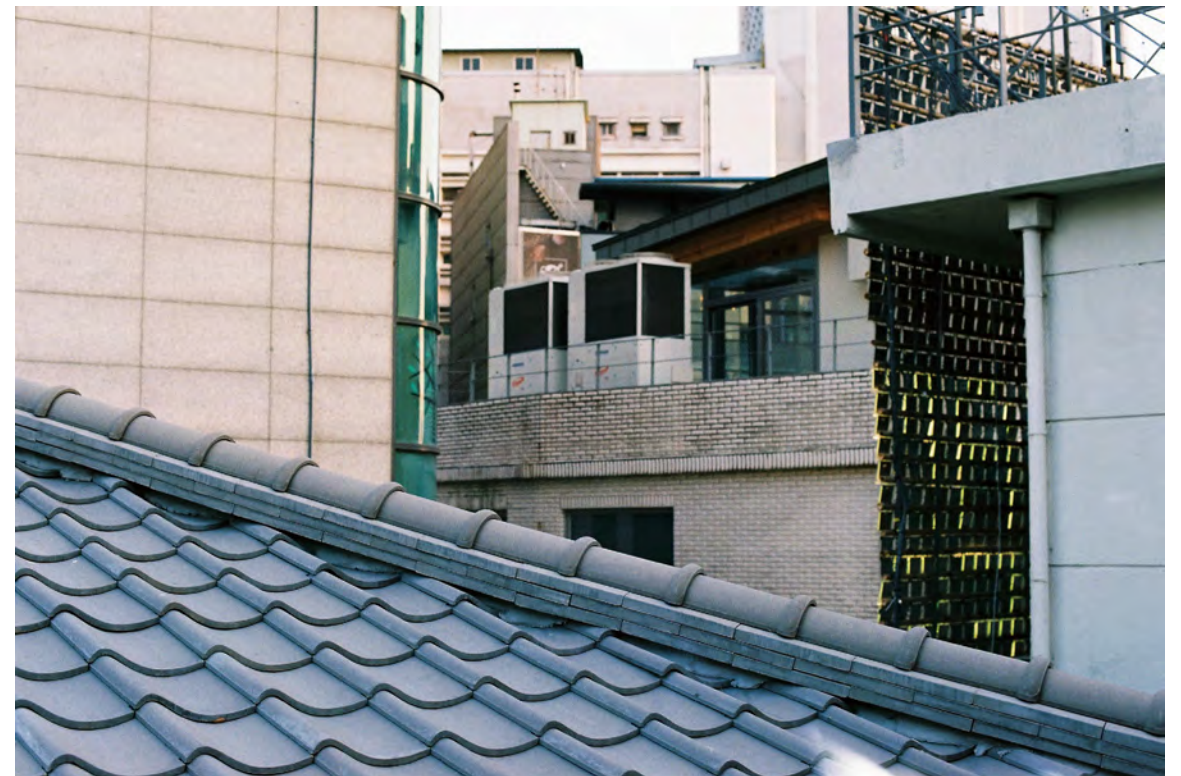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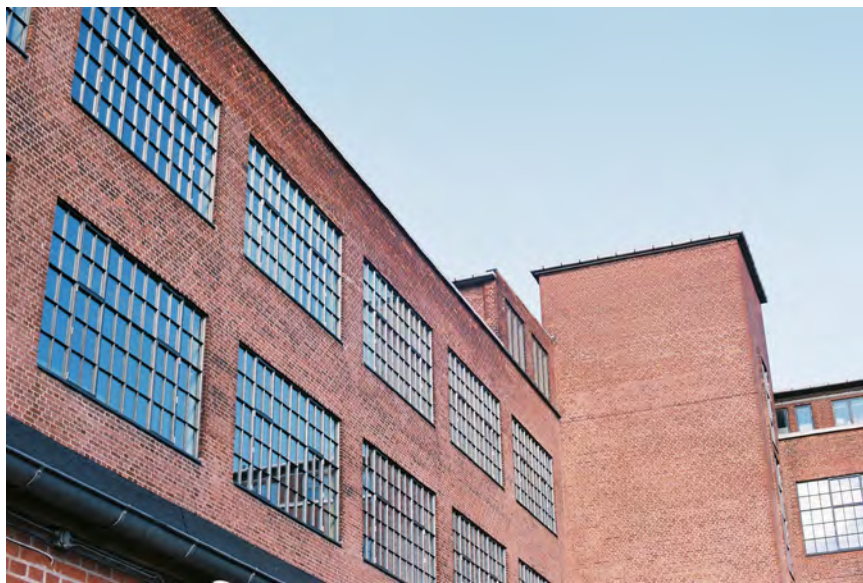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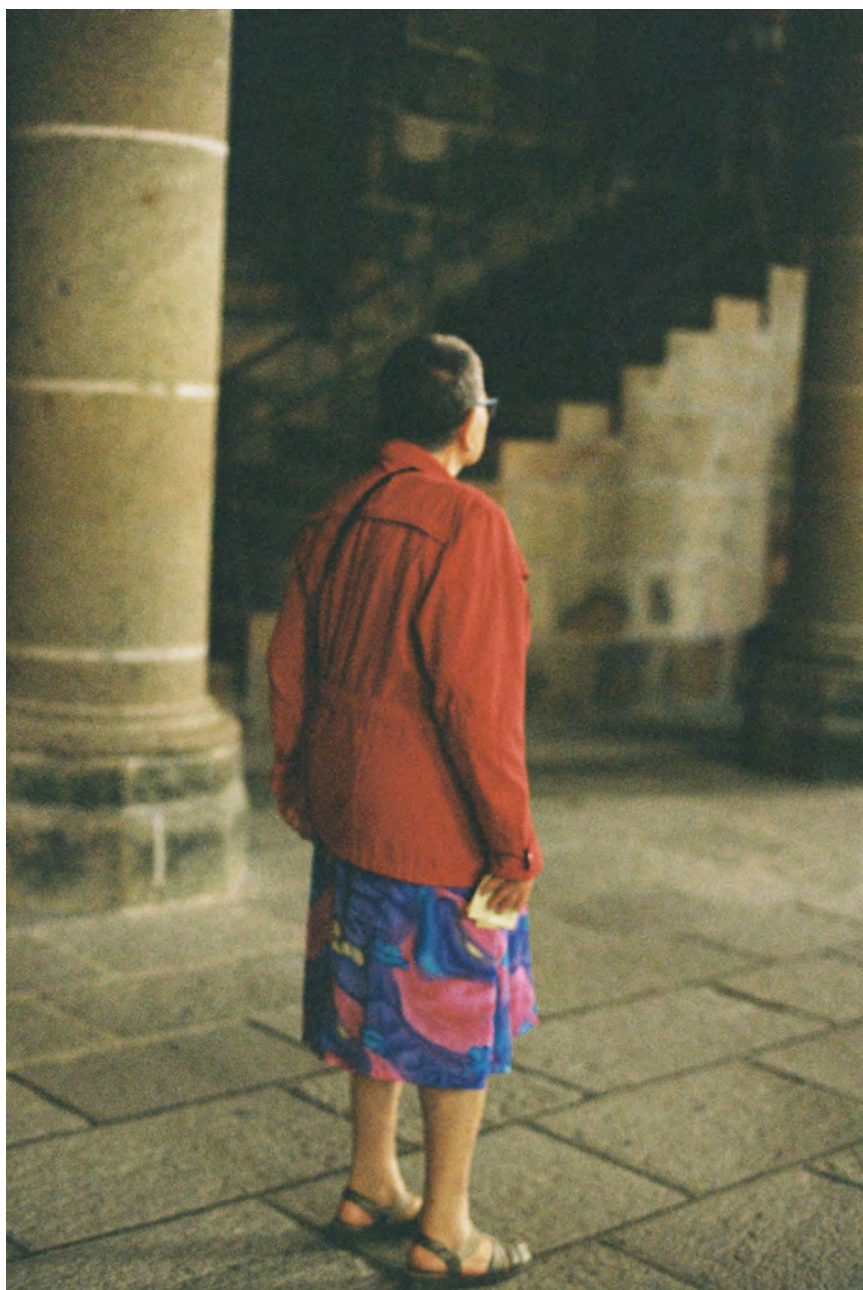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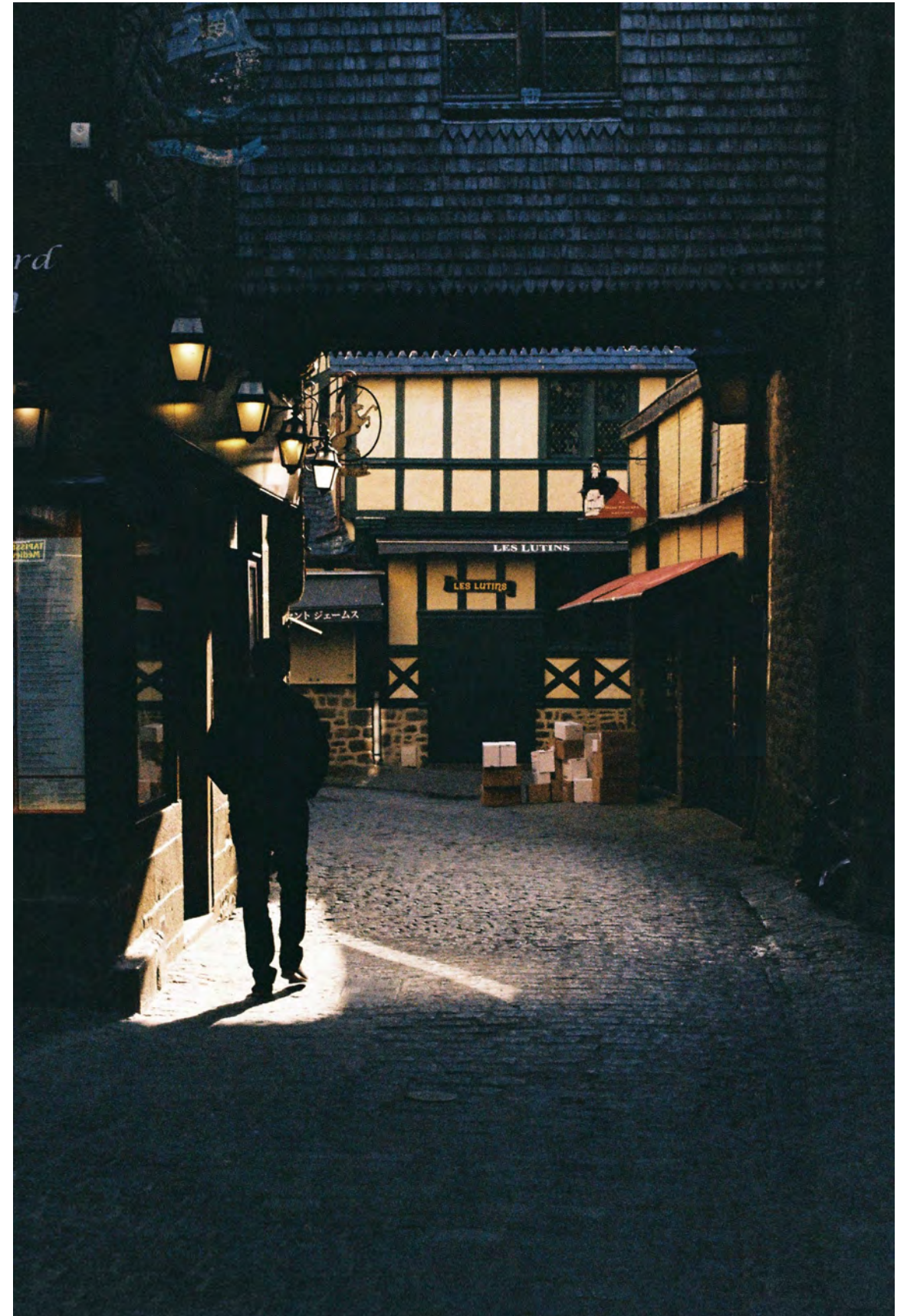




















**D**



**U**

**I**



**V**

1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내가 아직 눈을 뜨지 않았다.

모르겠다. 내가 눈을 떴는지 뜨지 않았는지. 팔을 들어, 손으로 눈가를 만져본다. 아아, 아직 눈을 뜨지 않았구나.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조심히 들어 올려보아도 변하는 건 없다. 그렇지. 어제 그와 함께 2층에 테라스가 있는 이자카야에서 마구로 정식을 먹었지. 기린 이찌방을 곁들여서. 나는 준마이 다이긴조를 먹고 싶었지만, 그 애는 언제나 맥주만을 마셨지. 그리고 나와서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느낌의 이자카야들이 있는 서울 속 도톤부리를 지나... 아니지, 어제 우린 프랑스가정식을 먹었어. 그 애는 뵈프 부르귀뇽을 먹었고, 나는 마구로 정식을 먹었지. 나는 소비뇽 블랑을, 그 애는 레드는 텃텃하다며 로제를 마셨어. 그러면서 우린 11시간

떨어져 있는 곳의 테러 현장에 대해서 말했어. 그럴 순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 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지. 강가를 거닐며 우린 취했고, 우린 춤을 쳤어. 너의 발소리가 내 손을 건드리고, 내 손은 너의 짧은 머리에 입맞추고, 너의 짧은 머리는 나를 부드럽게 안아줬어. 우린 그렇게 강가에서.

그런데 갠 도쿄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리옹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 같이 있었지? 그 애가 프랑스로 여행을 왔던가? 그건 그렇고, 도대체 여긴 어디지?

*나는 준마이 다이긴조, 너는 기린 이찌방.*

*나는 마구로를, 너는 뵈프 부르귀뇽을.*

*나는 소비뇽 블랑, 너는 로제.*

*나는 리옹, 너는 도쿄.*

*너의 발소리. 나의 손.*

*너의 짧은 머리.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아니 방인지 아닌지조차

2

3

모르겠다.

몸을 더듬어보니 익숙한 옷이다. 내가 즐겨 입는 린넨 셔츠와 넓은 바지. 그리고 군청색 단화.

탁, 탁, 탁, 탁.

몇 발자국 걸어보니 조금 빈 듯한 소리가 난다. 아무래도 바닥은 나무로 만들어졌나 보다.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는다. 아마도 방에 있는 것 같다.

수.

손끝에서 콘크리트의 차가움이 느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세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세걸음.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 이곳에 문은 없다. 나갈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왜 이곳에 있지. 불현듯 어렸을 때 할머니 댁 창고에 갇혔던

기억이 난다. 전날 하늘을 뒤덮은 회색 구름이 차가운 빗방울을 할머니 댁 마당에 잔뜩 쏟아 내렸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회색 구름을, 회색 속 더 짙은 회색 속 반짝이는 보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짙은 회색 속에서 이따금 반짝이던 보석은 눈을 깜빡이면 사라지곤 했다. 다음날 나는 고된 감기에 걸렸고, 할머니에게 무척이나 혼이났다. 동생은 그런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나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할머니에게 빌었다. 할머니는 감기에 걸린 나에게 따뜻한 곰국을 만들어주기 위해 동생과 함께 시장으로 나섰다. 할머니의 흔들의자. 마당에 키워놓은 푸른 생명들을 할머니는 언제나 바라보고 계셨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흔들.

이제 나도 할머니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인다.

흔들흔들흔들.



그녀가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그녀는 왈츠를 즐겨 추었다고 했다. 나도 그 왈츠를 취본다. 스물 후반의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리듬을 맞추어 본다. 그렇게 우리는 춤을 추다 팝콘을 닦은 매실나무 옆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엔 할머니와 함께 왈츠를 추던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른다. 사진으로 본 그의 얼굴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나이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그도 나를 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투두투 투두 투두투.

다시 회색 구름이 온 천장을 덮고 차가운 빗방울을 잔뜩 쏟아내나 보다. 나는 할머니에게 혼나기 싫어 문을 찾았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보석을 보고 싶었다. 그 보석을 다시 내 눈에 담고 싶었다. 그러나 낡은 나무로 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할아버지의 물건들처럼 이곳은 30년 전으로 돌아

가 있다. 지금 이 문은 30년 전과 연결되어있다. 나는 문을 열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어린 나에게 달려왔다. 내 손과 발을 묶고 아래서부터 그 어둠은 나를 질식해왔다. 단단한 쇠망치가 내 명치를 깊숙이 누르고 있었다. 내 손은 이미 어둠이 묶었지만 잔인한 상처가 가득한 나무문을 향해 나는 내 손을 내 뻗었다. 그러나 정신은 점점 희미해졌고 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끼이익.

빗방울은 눈꺼풀 위에 잠시 머물렀다 내 눈 속에서 보석이 된다. 난 그 보석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을 감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스으윽. 스으윽. 스으윽. 스으윽. 탁.

아, 문이다.

철컹.

문이 열린다. 역시나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문보다 조금 더 큰 너비의 복도인가. 적당한 크기의 아무것도 없는 방과 아직은 알 수 없는 복도 같은 공간. 얼마나 이곳에 있었던 거지. 다행히도 춥지도 덥지도 않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마치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어두움과 편안함. 이젠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구분이 가지 않는다. 혹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모두 현실이라고 인식된다.

...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아니면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서 오직 나만이 걷는다. 오직. 나만이. 아, 그는 잘 있을까. 그도 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깨어났을까. 이 복도의

끝에서 그도 나처럼 걷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나보다 강인하고 침착해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곳에서 나갔을지도 몰라. 나도 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나가고 싶나? 사실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곳은 느껴보지 못했어. 그래. 어쩌면 난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어제 그와 술을 마시고 우린 강가를 걸었다. 어떤 강이었는데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탁. 텅. 텅. 텅. 텅. 텅.

탁. 텅. 텅. 텅. 텅. 텅.

텅. 텅. 텅.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야.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어디지 어디쯤이지? 혹시 나를 해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 그인가? 아니다. 그는 저렇게 걷지 않는다. 저 발소리는 조금 둔탁하다. 그리고 분명 성급한 사람이며, 음

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낼 것이다. 아마, 와인보단 데킬라를 좋아할 것이다. 슈만보다는 프로코피예프를. 저 사람은 그가 아니다. 나는 확신한다.

*터벅. 터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저 사람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까? 내 발소리를 들었을까? 지금 내가 숨을 크게 쉬고 있나? 저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난 어찌할 수가 없다. 아니야, 저 사람도 나처럼 갇힌 사람일지도 몰라. 일단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다가가자. 차가운 콘크리트 벽. 차갑고 거친 돌로 이루어진 벽. 거친 돌. 아니, 언제 벽이 거친 돌이었지? 처음부터 그랬나? 내 손이 변한 것 같다. 손이 우둘투둘하고 거칠게, 마치 이 돌로 된 벽처럼 변한 것 같다. 벽이 내 손처럼 변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어둠은 더는 편안하지 않다. 내 몸을 죄어오는 것 같다.

*터벅. 터벅. 터벅. 터벅.*

근처까지 온 것 같다. 나는 지금 몸을 웅크리고 있다. 심장 소리가 저 사람에게 들릴 것이다. 분명히 들릴 것이다. 내 위치를 알고, 손에 든 거대한 둔기로 내 몸을 강타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혹시 이 어둠이 이미 둔기로 맞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나를 보며 내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사실 아까 그 방 근처일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을 잘게 했던 것 같다. 마치 기모노를 입은 사람처럼.

...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저 사람도 멈춘 것일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다. 잠깐 정신을 잃었나 보다.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웅크리고 있다. 그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지는 않다. 나는 그런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으니까. 다시 걷는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만지며. 다시 벽은 콘크리트가 되었다.

또 다른 벽이 만져진다. 내가 바라던 것처럼 복도 끝에 다른 문은 없다. 벽은 나의 예상과 기대를 비웃듯이 오른쪽으로 꺾어져 돌아간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걷는 것밖에 없다. 걷고 또 걷는다. 그러다가

광!

2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버섯, 파프리카...

이런저런 채소들이 끼워진 꼬챙이가 하나, 두울, 셋, 쌓여간다.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파프리카, 버섯, 바나나.. 가지, 파프리카? 꼬챙이 하나가 다르다. 아니, 이것은 틀린 것이다. 가지버섯파프리카바나나 나라에 반역자가 나타났다!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

내가 저 숲속에서 무기를 봤어.

어떤 무기? 날카로워? 아니면 불꽃이 일어나니?

아니. 날카롭지 않아. 불꽃도 없어.

그런 거론 반역자를 처단할 수 없어. 다른 무기를 찾아보자.

아니. 처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야.

스위치?

응, 그래 스위치. 그 스위치를 누르면 반역자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다시 무리와 함께 춤을 출 거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춤을. 난 살생을 하기 싫어.

맞아. 그녀는 채식주의자였지. 그래서 오늘 바베큐도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뿐인 거야.

그렇게 살생을 하기 싫어하던 그녀는 숲 속으로 들어간다. 숲 속. 바람도 불지 않는 데 나뭇가지들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 건지 쉬질 않는다. 소리가 나 쳐다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다. 고개를 돌리면 다시 재잘재잘, 수군수군. 그녀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니, 숲속으로 나간 건가?

나는 다시 꼬치를 끼운다.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아니, 도저히 이런 것은 더는 하지 못하겠다. 숲속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도저히 못 하겠어.

오고 있지. 내 목소리가 들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찾고 있으니까.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뭇잎 소리 사이로 들려온다. 나뭇잎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 시끄러운 나뭇잎이 자꾸만 내 앞에서 얼쩡거린다. 그녀는 사실 숲속으로 나갔다고.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다고.

개가 찾을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해? 아니, 개가 정말 무기를 찾으러 떠났다고 생각해? 흠음. 순진하네. 넌 반역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계속 이곳에서 숨고 있을 거야. 아니 숨고 있는 지도 모를걸. 녀석은 정말 교활하다고. 너가 반역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귀엽잖아. 난 이 많은 나뭇잎 중에서도 가장 귀엽다고. 그런 내가 교활해? 난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못된 역할을 하는 반역자였다면, 내가 어떻게 귀여울 수 있겠어?

그렇지. 너는 귀여우니까 반역자가 아니야.

그 녀석은. 교활하고 악랄해.

숲속에서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왠지

지쳐 보인다. 옷도 조금 찢어진 듯하다. 그리고 품 안에 무언가를 안고 있다.

무기를 찾았어.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이 무기인가? 뭔가 딱딱하면서도 기하학적 무늬가 전체를 덮고 있는 것. 앓. 움직였다. 생물인가. 저건 뭐지?

알렉스

그녀가 지어준 이름인가? 아니면 저것의 정체가 <알렉스>라는 건가. 알렉스가 뭐지?

알렉스?

그래 알렉스.

아니다. 이건 자라다. 이건 명백하게 자라다. 나는 전에 이 녀석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도 이 녀석은 그를 숙였다.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는 그때도 이 녀석을 믿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그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녀석을. 아직도 내가 그를 생각 할 때면 내 안에서 움튼 거리는 그때의 무력감, 그때의 고통. 그 고통은 영원히 나와 마주한다.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야. 그는 나를 믿지 못하고, 이 녀석을 믿었어. 그리고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내 인생에 거대한 구멍을 만든 너를, 나는 저주한다. 너는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주한다, 나는 너를. 그런데, 다시 내 앞에 등장한 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서 살아도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내 앞에 나타났다. 색이 빠진 빨간 로브 가운데 입을 입고 나타난 그녀. 집 안을 마치 유령처럼 돌아다니던 그녀의 빨간 로브 가운데. 항상 꿈꾸듯 말하는 그녀의 움직임. 미끄러지듯 바닥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녀는 나에게로 와서 내 손을 잡아 주었다.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나는 그런 그녀가 이끄는 대로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이곳으

로 왔다. 오고 있었다. 그렇다. 생명력. 그녀는 나에게 생명력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게 해주는 힘.

그런데 다시 내 앞에 너가 왜 나타났다는 말이나. 내 인생을 어떻게 또 망가뜨리려고 지금 그 알팍한 눈을 비늘로 뒤덮은 채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냐. 너는 사신인가. 내가 다시 살아 숨 쉬는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다는 것인가.

18      이게 무기야.

무기라고? 나를 죽이려고 온 거야? 그렇다면 어서 나를 죽여. 나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아. 나는 죽어서도 죽지 않을 거야. 그때 살아도 살지 못한 것처럼.

이게 번역자를 바꿔 놓을 거야. 다시 꼬치를 세어봐.

...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버섯, 파프리카, 바나나, 가지, 버섯, 파프리카...

번역자가 사라졌다. 번역자는 더는 번역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 못한다.

3

*am 3:00*

거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달 빛에 빛날 만큼 새하얀 몇 개의 박스들. 저 멀리 달에선 이 박스들을 보고 이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겠지.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검은 장막을 가로지르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am 6:00*

검은 장막이 조금씩 이동한다. 그는 유목 생활을 한다. 조금씩 조금씩 빠르진 않지만, 누구보다 일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계속 걸어 나가다 보면 언젠간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지구는 둥그니까. 검은 장막이 조금씩 움직이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바쁜 사람들의

움직임. 이 바쁜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은 않다. 이 시간에 바쁘다는 건 그만큼 고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겠지. 일찍 일어나는 새는 그만큼 간절할 뿐이다.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새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늦게 일어나는 새는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새하얀 박스는 7개다. 각기 다른 모양의 박스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박스안에선 아무런 미동도 없다.

*am 8:00*

세상은 푸르스름한 천이 덮인 것처럼 푸른 빛이 드리우고 있다. 아직 그 빛이 닿지 못한 곳도 있지만, 새하얀 박스는 푸르른 빛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의 박스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푸른 빛이 일렁거리는 박스안에서 흰색의 무언가가 웅얼거리고 있다. 조금 가까이 가보니, 푸른 빛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흰색이 더욱더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흰색의 얇은 옷을 입고 누워있는 흰색 머리의 노인. 노인은 푸른 빛이 싫은 것인지 자꾸만 뒤척이며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웅크려 들어간다. 그의 곁엔 얇은 책 몇 권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가 정성껏 기르는 것 같은 백합이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은 하얀 도자로 된 화분에 심어져 있다.

**그 아인 내 반려식물 아이사일세.**

노인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푸른빛을 피하며,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림자의 따뜻한 품으로 안겨 들어간다.

*am 10:00*

노인이 그 박스에서 나와 다른 박스의 문 앞에 있는 주머니를 열어서 흰색 우유병을 꺼낸다. 아마 아까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두고 갔을 것이다. 다른 박스로 이동

한 그는 스테인리스로 된 찬장에서 무화과 갠뽕을 꺼내 까망베르 치즈를 얇게 썰어 조금 전에 꺼낸 갠뽕을 갈라 그 안에 넣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하얀 생크림을 꺼내 그 위에 바른 다. 흰 우유와 치즈와 생크림이 올라간 갠뽕. 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왠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의식에 가까운 모습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에게 (어쩌면 신이 아닐 수도 있는) 드리는 의식(혹은 예배). 이 의식은 식사로 끝나지 않는다. 신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는 것일까. 온 몸을 정결히 한 뒤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얇은 흰 린넨 셔츠와 넓은 바지. 그리고 나무로 만든 딱딱한 신발. 어느새 옷을 다 갈아입은 그는 이곳저곳에 있는 흰색 박스를 돌아다닌다. 지난 어둠속에 행여나 흠집이 생기진 않았을까 돌보는 모습이다.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어쩐지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인다. 아, 그런 건가. 그는 지난밤을 무사히 견뎌 낸 박스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지금 이 너무나

도 밝은 빛 속에서 견뎌내길 기도하는 것이다.

*am 12:00*

그는 이곳저곳 방을 옮겨 다니며 햇빛을 피하고 있다. 그렇게 햇빛이 싫다면, 어두운 커튼을 달았을 법도 한데, 그의 박스들엔 어느 곳에도 커튼 하나 없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것처럼 집 안 구석 햇빛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그는 앉아 글을 쓰고 있다. 흰색 작은 노트에 나무로 만든 연필로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

탁,

연필심이 부러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작은 나무상자를 꺼내 든다. 그 안엔 방금 연필심이 부러진 연필과 비슷한 모양의 연필들이 여러 개가 더 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길이는 다르고, 둘레도 다르다. 진짜 나뭇가지 가운데에 흑연을 심은 듯하다. 그리고 보니 그

의 박스 사이사이엔 초록이 드문드문 나 있었다. 그 초록의 가치를 그대로 흰색 박스 안으로 가져와 초록이 하는 얘기를 받아 적는 걸까. 그는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는지 표정을 찡그리기도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며 무엇인가를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간다. 그러다가 다시 햇빛이 그에게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기곤 한다.

*pm 04:00*

그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 초록이 우거진 곳 아래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그의 옆엔 구겨진 흰색 종이가 여러 장 떨어져 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는 해맑게 웃으며 손에 종이로 만든 새를 들고 있다.

おりがみ

어느새 그의 주변엔 구겨진 종이와 함께 여러 마리의 새가 앉아있다. 그는 새 몇마리를

초록의 여기저기에 올려놓는다. 그들 중 몇 마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저귀고, 몇 마리는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노인은 그런 새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Il est un imbécile et je ne le sais pas  
Mais un imbécile peut avoir ses charmes  
Je suis amoureux et je ne le montre pas  
Comme un bébé dans les bras*

*L'amour est la même vieille sensation triste  
Dernièrement, je n'ai pas dormi un clin d'oeil  
Depuis cette imitation demi-pinte  
Mettez moi sur le clignement*

*Je suis sauvage à nouveau  
Beguiled à nouveau  
Un enfant sourissant et gémissant à nouveau  
Ensorcelé, dérangé et perplexe suis-je*

*Pourrais pas de dormir  
Et ne dormirait pas  
Quand l'amour est venu et m'a dit que je ne devrais pas dormir  
Ensorcelé, dérangé et perplexe suis-je*

*Perdu mon cœur, mais quoi?  
Il a froid, je suis d'accord  
Il pourrait rire, mais je l'aime  
Bien que le rire soit sur moi*

*Je vais lui chanter  
Chaque printemps à lui  
Et longtemps pour le jour quand je vais m'accrocher à lui  
Ensorcelé, dérangé et perplexe suis-je*

한참을 나무와 지저귀는 새를 바라보다 그는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엔 7개의 박스가 있다. 그 사이엔 약간의 초록들. 그리고 그 초록들 사이엔 그가 만든 하얀 새와 하얀 다람쥐와 하얀 도마뱀이 함께 살고 있다. 들어갔던 노인이 아침에 먹고 남은 캄빠뉴를 들고나온다. 조금 허기졌던 걸까. 그는 자신의 박스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의 왕국 안 국민들에게 조금씩 빵을 떼어주었다.

나는 왕이 아닐세.

그는 그의 박스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의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었다.

*pm 07:00*

역시나 지구는 둥근 걸까. 일찍이 떠났던, 검은 장막이 조금씩 다시 이곳으로 오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 않게,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움직여 온다. 아직 하얀 빛이 이곳에 있지만, 노인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초록들 사이 아직 남은 빛에 빛나는 푸르른 물결. 노인은 그 물결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노인 앞에 있는 작은 웅덩이는 자기가 작다는 것을 모르는 지 분에 넘치는 파도도 만들어 낸다.

*처얼씩 처얼씩.*

파도가 부서지며 이따금 흰색 거품을 만들어 낸다. 그 거품들 속에서 피어난 인어 한 마리(어쩌면 한 명). 인어는 왜 이제야 자기랑 놀아주냐며 노인에게 투정을 부린다. 노인은 멧쩍

은 웃음을 지으며 인어를 달랜다.

*pm 10:00*

어느새 검은 장막이 이곳에 도착했지만, 아직 이곳은 밝은 빛이 가득하다. 박스 혹은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은 그 안에서 밝은 빛을 내뿜고 있다. 여기 이 일곱 개의 박스들은 아무런 빛을 내뿜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흰 빛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안에 있는 노인은 다른 흰색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이사와 한창 얘기를 하더니 피곤한지 누워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책을 읽고 있다.

나는 흰색이 정말 싫다네.

*pm 12:00*

거의 모든 빛들이 사라지고 있다. 모든 빛들이 사라지더라도 이 박스들은 달빛을 비추며 다른 별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별을 말하고 있겠지.

4

한달전부터 내 몸은 변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나는 계속해서 변해왔을지도 모른다. 처음엔 이 땅과 이어져 있었지만, 점점 내 몸은 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땅과 이어진 나도 있지만, 나의 대부분은 이제 땅을 이용한다. 그래, 전엔 땅이 곧 나였지. 내가 혼자가 아니냐고? 당연한 소릴. 난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있으면서 태어났고 너희가 사라지게 되면 나도 사라지게 되겠지. 너희 나와 한 운명이야, 물론 나도 나와 한 운명이고. 우린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내가 살아온 길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다. 나는 굉장히 거대했던 적도 있고, 얼마 전엔 굉장히 작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너넨 날 필요로 한다. 예전에 나는 오랫동안 모습을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왔던 적도 있었다. 그때가 좋았냐고? 사실 상관없다. 그때 그저, 그런 시절이었던 거다. 지금 나는 계속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반복

한다. 전보다 그 주기가 빨라지긴 했지만, 그냥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내가 조금 늙었다고, 내 몸이 약간 부서졌다고 나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진 않아. 예전에 나는 그저 존재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갔었다. 나를 너희를 과시하게 만드는 용도로 썼을 때도 있었다(이건 지금도 그런가). 지금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은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아. 물론 우린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나와 함께 살진 않는다. 나를 이용해 너희의 욕심을 키워가고 있다. 그걸 두고 내가 뭐라고 할 순 없다. 나는 너희가 있기에 태어났으니까. 가끔 내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못되게 태어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나는 변하기 마련이다.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말하는 건, 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나는 그저 너희의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다. 나에게 잘못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아, 이건 농담이다. 어쨌든 우린 한 운명을 타고났으니,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내가 누구냐고? 주변을 돌아봐.

## INDEX

<b>Page</b>	<b>Place</b>	<b>Time</b>
1	Seoul	Oct, 2017
2	Firminy	Jul, 2017
3	Firminy	Jul, 2017
4	Copenhagen	Apr, 2017
5	Seoul	Oct, 2017
6	Jeju	Jan, 2018
7	Jeju	Jan, 2018
8	Jeju	Jan, 2018
9	Barcelona	May, 2017
10	Paris	Mar, 2017
11	Weil am Rhein	Jul, 2017
12-13	Barcelona	May, 2017
14	Barcelona	May, 2017
15	Barcelona	May, 2017
16	Barcelona	May, 2017
17	Barcelona	May, 2017
17	Barcelona	May, 2017
18	Barcelona	May, 2017
19	Barcelona	May, 2017
19	Barcelona	May, 2017
20-21	Barcelona	May, 2017
22	Frankfurt	Jul, 2017
23	Paris	Jun, 2017
24-25	Weil am Rhein	Jul, 2017
26	Antwerp	Jul, 2017
27	Barcelona	May, 2017
28	Copenhagen	Apr, 2017
29	London	Jul, 2017
30	Seoul	Oct, 2017
31	Prague	Jul, 2017
32	Frankfurt	Jul, 2017
33	Barcelona	May, 2017
34	Firminy	Jul, 2017
35	Copenhagen	Apr, 2017
36	Basel	Jul, 2017
37	Barcelona	May, 2017
38-39	Basel	Jul, 2017
40-41	Basel	Jul, 2017
43	Jeju	Jan, 2018
44	Firminy	Jul, 2017
45	Firminy	Jul, 2017
46-47	Firminy	Jul, 2017
49	Jeju	Jan, 2018
50-51	Prague	Jul, 2017
52	Firminy	Jul, 2017
53	Weil am Rhein	Jul, 2017
54-55	Rotterdam	Jul, 2017
56-57	Barcelona	May, 2017
58	Copenhagen	Apr, 2017

59	London	Jul, 2017	116	Rotterdam	Jul, 2017	
60	Paju	Jun, 2014	118-119	Antwerp	Jul, 2017	
61	Seoul	Oct, 2017	120	Hong Kong	Apr, 2014	
62	Seoul	Oct, 2017	121	Hong Kong	Apr, 2014	
63	Seoul	Oct, 2017	122	Mont Saint-Michel	Jun, 2017	
64	Seoul	Oct, 2017	123	Paris	Mar, 2017	
65	Seoul	Oct, 2017	124-125	London	Jul, 2017	
67-70	Paris	Feb, 2017	127	Mont Saint-Michel	Jun, 2017	
72	Firminy	Jul, 2017	128-129	Weil am Rhein	Jul, 2017	
73	Firminy	Jul, 2017	130-131	Lyon	Jul, 2017	
74	Basel	Jul, 2017	132-133	Seoul	Mar, 2012	
75	Firminy	Jul, 2017				
76	Firminy	Jul, 2017				
77	Firminy	Jul, 2017				
78	Firminy	Jul, 2017				
78	Firminy	Jul, 2017	<b>Antwerp</b>			
79	Firminy	Jul, 2017	26	Jul, 2017	93	Jul, 2017
80	London	Jul, 2017	90	Jul, 2017	96	Jul, 2017
81	London	Jul, 2017	91	Jul, 2017	118-119	Jul, 2017
82-83	Paris	Jun, 2017				
85	Barcelona	May, 2017				
86	Firminy	Jul, 2017				
87	Weil am Rhein	Jul, 2017	<b>Barcelona</b>			
88	Copenhagen	Apr, 2017	9	May, 2017	19	May, 2017
89	London	Jul, 2017	12-13	May, 2017	19	May, 2017
90	Antwerp	Jul, 2017	14	May, 2017	20-21	May, 2017
91	Antwerp	Jul, 2017	15	May, 2017	27	May, 2017
92	Lyon	Jul, 2017	16	May, 2017	33	May, 2017
93	Antwerp	Jul, 2017	17	May, 2017	37	May, 2017
94	Copenhagen	Apr, 2017	17	May, 2017	56-57	May, 2017
95	Wonju	Jan, 2018	18	May, 2017	85	May, 2017
96	Antwerp	Jul, 2017				
97	Jeju	Jan, 2018				
98	Seoul	Oct, 2017				
99	Paris	Mar, 2017	<b>Basel</b>			
100	Paris	Mar, 2017	36	Jul, 2017	40-41	Jul, 2017
101	Seoul	Oct, 2017	38-39	Jul, 2017	74	Jul, 2017
102	Seoul	Oct, 2017				
103	Seoul	Oct, 2017				
104	Copenhagen	Apr, 2017	<b>Copenhagen</b>			
104	Copenhagen	Apr, 2017				
105	Copenhagen	Apr, 2017	4	Apr, 2017	94	Apr, 2017
106	Jeju	Jan, 2018	28	Apr, 2017	104	Apr, 2017
106	Jeju	Jan, 2018	35	Apr, 2017	104	Apr, 2017
107	Weil am Rhein	Jul, 2017	58	Apr, 2017	105	Apr, 2017
108	Firminy	Jul, 2017	88	Apr, 2017		
109	Firminy	Jul, 2017				
110	Firminy	Jul, 2017				
110	Firminy	Jul, 2017				
111	Firminy	Jul, 2017	<b>Firminy</b>			
112	Seoul	Sep, 2017	2	Jul, 2017	45	Jul, 2017
113	Seoul	Sep, 2017	3	Jul, 2017	46-47	Jul, 2017
114	Frankfurt	Jul, 2017	34	Jul, 2017	52	Jul, 2017
115	London	Jul, 2017	44	Jul, 2017	72	Jul, 2017



73	Jul, 2017	86	Jul, 2017	<b>Seoul</b>			
75	Jul, 2017	108	Jul, 2017	1	Oct, 2017	98	Oct, 2017
76	Jul, 2017	109	Jul, 2017	5	Oct, 2017	101	Oct, 2017
77	Jul, 2017	110	Jul, 2017	30	Oct, 2017	102	Oct, 2017
78	Jul, 2017	110	Jul, 2017	61	Oct, 2017	103	Oct, 2017
78	Jul, 2017	111	Jul, 2017	62	Oct, 2017	112	Sep, 2017
79	Jul, 2017			63	Oct, 2017	113	Sep, 2017
				64	Oct, 2017	132-133	Mar, 2012
				65	Oct, 2017		
<b>Frankfurt</b>		<b>Hong Kong</b>					
22	Jul, 2017	120	Apr, 2014				
32	Jul, 2017	121	Apr, 2014	<b>Weil am Rhein</b>			
114	Jul, 2017			11	Jul, 2017	87	Jul, 2017
				24-25	Jul, 2017	107	Jul, 2017
				53	Jul, 2017	128-129	Jul, 2017
<b>Jeju</b>							
6	Jan, 2018	49	Jan, 2018				
7	Jan, 2018	97	Jan, 2018	<b>Wonju</b>			
8	Jan, 2018	106	Jan, 2018	95	Jan, 2018		
43	Jan, 2018	106	Jan, 2018				
<b>London</b>				<b>Mar, 2012</b>			
29	Jul, 2017	89	Jul, 2017	132-133	Seoul		
59	Jul, 2017	115	Jul, 2017				
80	Jul, 2017	124-125	Jul, 2017				
81	Jul, 2017						
				<b>Apr, 2014</b>		<b>Jun, 2014</b>	
				120	Hong Kong	60	Paju
<b>Lyon</b>		<b>Mont Saint-Michel</b>		121	Hong Kong		
92	Jul, 2017	122	Jun, 2017				
130-131	Jul, 2017	127	Jun, 2017				
				<b>Feb, 2017</b>		<b>Mar, 2017</b>	
				67-70	Paris	10	Paris
<b>Paju</b>						99	Paris
60	Jun, 2014						
				<b>Apr, 2017</b>			
				4	Copenhagen	94	Copenhagen
<b>Paris</b>				28	Copenhagen	104	Copenhagen
10	Mar, 2017	99	Mar, 2017	35	Copenhagen	104	Copenhagen
23	Jun, 2017	100	Mar, 2017	58	Copenhagen	105	Copenhagen
67-70	Feb, 2017	123	Mar, 2017	88	Copenhagen		
82-83	Jun, 2017						
				<b>May, 2017</b>			
<b>Prague</b>		<b>Rotterdam</b>		9	Barcelona	15	Barcelona
31	Jul, 2017	54-55	Jul, 2017	12-13	Barcelona	16	Barcelona
50-51	Jul, 2017	116	Jul, 2017	14	Barcelona	17	Barcelona

17	Barcelona	27	Barcelona	98	Seoul	102	Seoul
18	Barcelona	33	Barcelona	101	Seoul	103	Seoul
19	Barcelona	37	Barcelona				
19	Barcelona	56-57	Barcelona				
20-21	Barcelona	85	Barcelona				
				<b>Jan, 2018</b>			
				6	Jeju	97	Jeju
<b>Jun, 2017</b>				7	Jeju	106	Jeju
23	Paris	122	Mont Saint-Michel	8	Jeju	106	Jeju
82-83	Paris	127	Mont Saint-Michel	43	Jeju	95	Wonju
				49	Jeju		
<b>Jul, 2017</b>							
92	Lyon	107	Weil am Rhein				
130-131	Lyon	128-129	Weil am Rhein				
2	Firminy	36	Basel				
3	Firminy	38-39	Basel				
34	Firminy	40-41	Basel				
44	Firminy	74	Basel				
45	Firminy	31	Prague				
46-47	Firminy	50-51	Prague				
52	Firminy	22	Frankfurt				
72	Firminy	32	Frankfurt				
73	Firminy	114	Frankfurt				
75	Firminy	26	Antwerp				
76	Firminy	90	Antwerp				
77	Firminy	91	Antwerp				
78	Firminy	93	Antwerp				
78	Firminy	96	Antwerp				
79	Firminy	118-119	Antwerp				
86	Firminy	54-55	Rotterdam				
108	Firminy	116	Rotterdam				
109	Firminy	29	London				
110	Firminy	59	London				
110	Firminy	80	London				
111	Firminy	81	London				
11	Weil am Rhein	89	London				
24-25	Weil am Rhein	115	London				
53	Weil am Rhein	124-125	London				
87	Weil am Rhein						
<b>Sep, 2017</b>							
112	Seoul	113	Seoul				
<b>Oct, 2017</b>							
1	Seoul	62	Seoul				
5	Seoul	63	Seoul				
30	Seoul	64	Seoul				
61	Seoul	65	Seoul				

# 바디

## BODY

우리의 몸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몸들과 만나게 된다. 그 중 거대한 몸을 지닌 것들도 있다. 그 거대한 몸과 우리의 몸, 그리고 몸 아닌 것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사진소설집 <BODY>는 건축을 파악하는 태도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한다. 건축을 읽는다는 것은 다층적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합하는 행위에 가깝다. 평면과 입단면, 투시도와 사진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조합하는 행위다. 각기 다른 이미지가 병치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며 불투명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책은 기본적으로 두 페이지 공간에 오브제를 배치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사진 자체에는 여러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환상이고, 여러 레이어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납작해져서 위치한다. 현실을 뷰파인더에 담아 필름에 투영하고 그것을 다시 jpg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납작해진다. 책은 이 납작한 레이어들을 쌓아서 부피를 만드는 행위의 반응이다.

오해와 착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확정하는 믿음에 대한 의심으로, 사진과 글은 한 권의 책 속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김정민

### Jungmin KIM

김정민은 건축을 공부하고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듭니다. 김정민은 귀엽습니다.

BODY 바디

Published in Seoul, South Korea  
copyright © 2018 Jungmin KIM  
All Right Reserved